

Apellian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의 고객과 함께하는 웨딩 멤버십 매거진.
웨딩의 새로운 문화와 한 차원 높은 품격을 선보이기 위한 특별한 여정을 기록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고객의
웨딩 하나하나가 의미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로서 전하는 조언과 노하우도 담았다.

Apellian

VOLUME. 6



About the Cover

박용일(Park Yong Il)의 '보따리'

표지에 실린 박용일 작가의 '보따리'는 2014년부터 시작된 연작으로, 더채플앳대치의 2층 연회장에 걸려 있는 작품이다. 작가의 말을 통해 본 보따리의 의미는 '삶'이다. "너무 많은 삶의 이야기, 그릴 수 없어 보따리로 묶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모두 그려낼 수 없기에, 그것들을 싸서 묶는 보따리를 만들었다. 겉으로는 비어 있는 듯 보이지만, 나의 보따리는 관객의 삶과 상상을 품는 그릇이다." 웨딩 준비는 곧 두 사람만의 보따리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이를 표지에 실는다.

결혼 준비를 위한 위망업 매거진, Apellian

아펠리안은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에서 결혼을 앞두었거나 예식을 치른 고객을 일컫는 이름이자 지난 2018년부터 발행해온 웨딩 매거진의 제호입니다. 아펠리안 6호는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을 통해 선보이는 웨딩의 새로운 문화와 품격은 물론, 결혼 준비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Your Moment, Apellian Stories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이 아펠리안과 함께 만드는 고유한 모멘트.
웨딩의 '오늘'과 아펠리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016.

INTRODUCING THE LUMIGLOW WEDDING

2025년 9월 새롭게 문을 연 더채플앳대치의 곳곳을 프레임에 담았다.

032.

WHERE ART MEETS WEDDING

웨딩 공간과 미술이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더채플앳대치가 그에 대한 답을 누구보다 먼저 보여줬다.

038.

MASTERS BEHIND THE SCENES

더채플의 가장 진보한 공간, 더채플앳대치 프로젝트에
투입된 열정 넘치는 구성원들을 만났다.

042.

THE SHAPE OF WEDDING

디자인 스튜디오 라보토리를 만나 더채플앳대치의 디자인
스토리에 대해 물었다.

044.

FROM SISTER TO SISTER

자매가 2년 간격으로 아펠가모와 더채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누구의 추천이었을까?

046.

JUST FOR APELLIAN

콘텐츠와 공간이라는 각각의 형태로, 국내 웨딩 문화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아펠리안 클래스와 더채플
라운지를 소개한다.

052.

OPEN UP YOUR WEDDING BOOK

스스로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내 손안의 웨딩
정보 앱

056.

WELLNESS WE WANT

결혼 준비로 지친 예비부부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스파 '트리츠'.

060.

THE SCENT OF ETERNAL LOVE

순간은 향기로 기억된다. 더채플의 추억을 집에서 향으로
누리는 방법.

064.

SMART & SEAMLESS

투명성을 위한 첫 발걸음, 스마트예약 시스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065.

SUSTAINABILITY FOR EVERY MOMENT

웨딩 메뉴도 지속가능성이 적용되는 영역. 그래서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066.

YOU MAKE ME SO EMOTIONAL

결혼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이 넘쳐난다. 즐겁고
몽글하며 애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고객들로부터 받았다.

074.

PRO TIPS FOR THE BIG DAY

결혼식을 잘 치르기 위해 사전에 꼭 알아둬야 할 '웨딩
데이 팀'은 무엇일까? 전문가의 팁을 정리했다.

Every Moment Counts, The Wedding Has Already Begun

결혼 준비 기간은 설렘이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그려왔던 완벽한 결혼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078.

WEDDING TRENDS & RESEARCH

수많은 웨딩 서비스와 브랜드. 그중 아펠리안의 선택이
가장 많이 물린 곳은?

084.

YOUR WEDDING, YOUR WAY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할지 정하는 게 가장 먼저다.

088.

FINDING THE PERFECT HONEYMOON

진짜 만족스러운 신혼여행 계획은 '어디'보다 '어떻게'가
먼저다.

094.

BOUQUET OF LIFETIME

웨딩의 인상은 부케에서 시작된다. 나만의 부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소개하는 부케 잘 만드는 플라워 슝 4.

100.

HOW TO CAPTURE THE MOMENT THE WAY WE LOVE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남기는 결혼식의 순간들.
아이폰 스냅의 존재 이유다.

104.

IT'S ALL ABOUT LITTLE DETAILS

나다운 스타일을 완성하는 웨딩 헤어의 내추럴한 한 곳.

108.

MY WEDDING MEMORY

지나고 보면 결혼 준비 기간은 반짝이는 찰나의 모음집.
결혼식을 무사히 치른 '선배 부부'들이 결혼 준비의
추억을 꺼냈다.

112.

MUST DO IT TEST BEFORE WEDDING

결혼 준비는 돌만의 팀워크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두 가지 워킹업 테스트를 준비했다.

115.

WEDDING ESSENTIALS

웨딩 선배들이 한 번쯤은 거쳐간 교과서 같은 웹사이트,
유용한 앱, 필수 정보들의 리스트를 한데 모았다.

116.

WEDDING DIARY

아펠리안의 빈틈없는 결혼 준비를 도와줄 웨딩 체크북을
준비했다.

Dream Wedding Venues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이 쌓아온 예식의 품격

‘웨딩로드 위를 함께 걷는 두 사람의 결혼 행진’을 뜻하는 아펠가모는 2011년 잠실에 첫 공간을 열었다. 이후 럭셔리 웨딩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더채플과 낭만적인 무드로 완성한 루벨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예식 공간을 선보이며, 5만여 건에 달하는 예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리고 2025년 9월, 더채플앳대치의 오픈과 함께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9개 공간이 견고한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다.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은 단순히 근사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식 공간이 특별한 순간을 완성하는 방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데 진정한 특별함이 있다. 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 신부대기실의 전용 화장실과 개인 파우더룸, 러기지 트롤리, 파인다이닝 연회 등 세심한 터치가 돋보이는 서비스를 통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The Banquet

아펠가모 잠실

호텔 스타일의 웅장한 웨딩

아펠가모에서 처음 선보인 웨딩 메뉴로, 지금도 호텔형 웨딩을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공간. 단독 홀로 구성돼 프라이빗한 예식이 가능하며, 풍성한 플라워 장식과 긴 웨딩로드, 높은 천장이 어우러져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그리너리 콘셉트의 자연 채광이 가득한 신부대기실은 싱그러움과 생동감이 넘친다. 잠실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어 하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 02-2144-0230



The Classic

아펠가모 반포
여유로움이 가득한 프라이빗 웨딩

아펠가모 반포는 중정을 통해 스며드는 채광과 고품스러운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웨딩홀, 연회장, 신부대기실, 폐백실이 같은 층에 있어 편리한 동선을 자랑한다. 리뉴얼을 통해 한층 더 산뜻해진 신부대기실은 녹음과 생화 장식으로 생기를 더했으며 연회장은 입체적 공간 구성으로 품격을 높였다. 고속터미널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쉬운 교통 입지도 강점이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반포 효성빌딩 LL층 | 02-3431-0230



The Classic

아펠가모 광화문
서울 사대문 안에서 치르는 채플 웨딩

풍수지리적 명당으로 손꼽히는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한 채플형 웨딩 베뉴로, 리조트 콘셉트와 자연 소재를 활용한 이국적인 분위기가 돋보인다. 두 개의 메인 신부대기실을 운영해 한층 더 여유로움을 제공하며, 혼주 전용 헤어&메이크업 공간을 마련해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웨딩홀의 천장과 기둥은 웅장한 무드를 살리고, 한옥 장인이 설계한 전통 대궐 양식의 폐백실은 고혹적이고 품격 있는 예식을 완성한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중학동), 더케이트원타워 A동 LL층 | 02-730-0230



The Urban

아펠가모 선릉

우아한 채플형 웨딩에
모던함을 더한 어반 웨딩

도심 속 스타일리시한 어반 웨딩 콘셉트를 표방하는 네오클래식 무드의 모던한 채플형 웨딩 베뉴로, 브라운 톤 벽돌과 클래식한 상들리에가 따뜻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웨딩홀 입장 전 혼주와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섞이지 않고 입장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차분한 예식 진행이 가능하다. 선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췄다.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이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결혼식 참석 후 산책을 즐기기도 좋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 4층 | 02-2183-0230



The Romantik

아펠가모 공덕

현대적 로마네스크 양식의
경건함이 깃든 웨딩

다섯 번째로 오픈한 아펠가모 공덕은 여의도와 마포의 대표적인 웨딩 베뉴로 자리매김했다.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개의 웨딩홀을 갖추고 있다. 라로브홀은 아치형 천장과 긴 웨딩로드로 성대한 분위기를, 마리에홀은 석조 기둥과 클래식한 인테리어로 중세 성당 같은 웅장함을 자아낸다. 공덕역과 연결된 교통 요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KTX 서울역과도 가까워 지방 하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92(도화동), 효성해링턴스퀘어 B동 6~7층 | 02-2197-0230



French Garden

루벨 강동

프렌치 가든에서 펼쳐지는
도심 속 낭만 웨딩

프렌치 가든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웨딩홀로, 35층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한강
주변 스카이라인과 롯데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시티 뷰가 압도적이다. 루프탑 포토
스팟과 싱그러운 야외 정원을 모티브로 한 신부대기실이 매력을 더한다. 신부대기실에서
시작되는 신비로운 웨딩로드는 신부의 첫걸음을 더욱 빛나게 한다. 전문 세프들이
선보이는 연회와 세심한 서비스는 하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 35~36층 | 02-6956-0230



The Elegant

더채플앳청담

한국형 럭셔리 채플 웨딩

더채플앳청담은 절제된 클래식 위에 럭셔리한 감성을 더하며 한국형 채플 웨딩의
독보적인 시작을 알린 곳이다. 지난 해 10주년을 맞이한 더채플앳청담은 럭셔리 웨딩
메뉴의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다. 프라이빗함을 선사하는 단독 건물에 자리 잡은
채플홀은 국내 최고 높이의 12m 아치형 천고와 수면 위로 떨어진 물방울의 파동을
형상화한 시그니처 월 패턴으로 웅장하고 경건한 웨딩 분위기를 연출한다. 커티지홀은
아치형 천고와 곳곳에 마련된 캔들 라이트로 따뜻하면서도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논현동) | 02-421-1121



Urban Forest

더채플앳논현
럭셔리 어반 포레스트 웨딩

평화롭고 싱그러운 숲의 이미지를 재현한 더채플앳논현은 두 개의 웨딩홀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완성된 공간이다. 라포레홀은 층고가 높고 전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햇살이 내리쬐는 눈부신 숲의 풍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정면 주례 단상 위에 세워진 종 모양의 파빌리온은 이곳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다. 숲속 신전에서 영감을 받은 라메르홀은 혼인 서약이 이루어지는 단상 양옆과 홀 벽을 따라 흐르는 수로가 더욱 신성한 느낌을 선사한다. 업그레이드된 라이브 키친에서 선보이는 스타 셰프들의 창의적인 메뉴와 입맛을 돋우는 안티파스토존은 더채플앳논현만의 자랑거리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9(역삼동) | 02-562-1121



Lumiglow

더채플앳대치
몰입과 환희의 웨딩 모먼트

따뜻하게 감싸는 자연광과 잔잔히 흐르는 별빛이 어우러진 더채플의 새로운 웨딩 메뉴. 신부대기실에서 웨딩홀까지 길게 이어진 밝은 채광이 스며드는 회랑은 공간의 아름다움을 드라마틱하게 배가시키는 건축적 요소다. 별빛을 형상화한 세심한 조명도 몰입과 환희의 순간을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기술이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듯 설계된 로비와 웰컴리셉션은 하객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강남 지역의 마천루 풍경이 펼쳐지는 프라이빗한 루프탑테라스는 더채플앳대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황홀한 뷰포인트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8(대치동) | 02-554-1121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이 아펠리안과 함께 만드는 고유한 모멘트.
웨딩의 '오늘'과 아펠리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Your Moment, Apellian Stories

INTRODUCING THE LUMIGLOW WEDDING

2025년 9월 새롭게 문을 연 더채플앳대치. 흐르듯 반짝이는 별빛과 부드럽게 감싸는 곡선,
활짝 열린 루프탑의 곳곳을 프레임에 담았다.

더채플의 세 번째 공간인 더채플앳대치는 따뜻하게 감싸는 자연광과 잔잔히 흐르는 별빛이 어우러져
몰입과 환희의 웨딩 모멘트를 선사하는 공간이다. 로비의 부드러운 곡선과 천장에 수놓은
별빛은 신부대기실로 흐르듯 이어진다. 부드럽게 굽이치는 듯한 웨딩홀은 루미글로우(Lumiglow)라는
콘셉트에 맞춰 은은하게 빛난다. 아름다운 축하가 오가는 연회장에서의 시간부터 축복의 잔이 부딪히는
루프탑에서의 황홀한 순간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웨딩 메뉴의 탄생이다.



흐르는 별빛과 시선이 닿는 곳, 신부대기실
예식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인 신부를 위한 특별한 공간. 극적인 곡선으로 디자인된 입구는 살짝 들어올린 커튼처럼 낭만적인 무드를 연출한다. 웨딩홀로 길게 이어지는 신비로운 회랑의 통창은 도심 속 풍경을 그대로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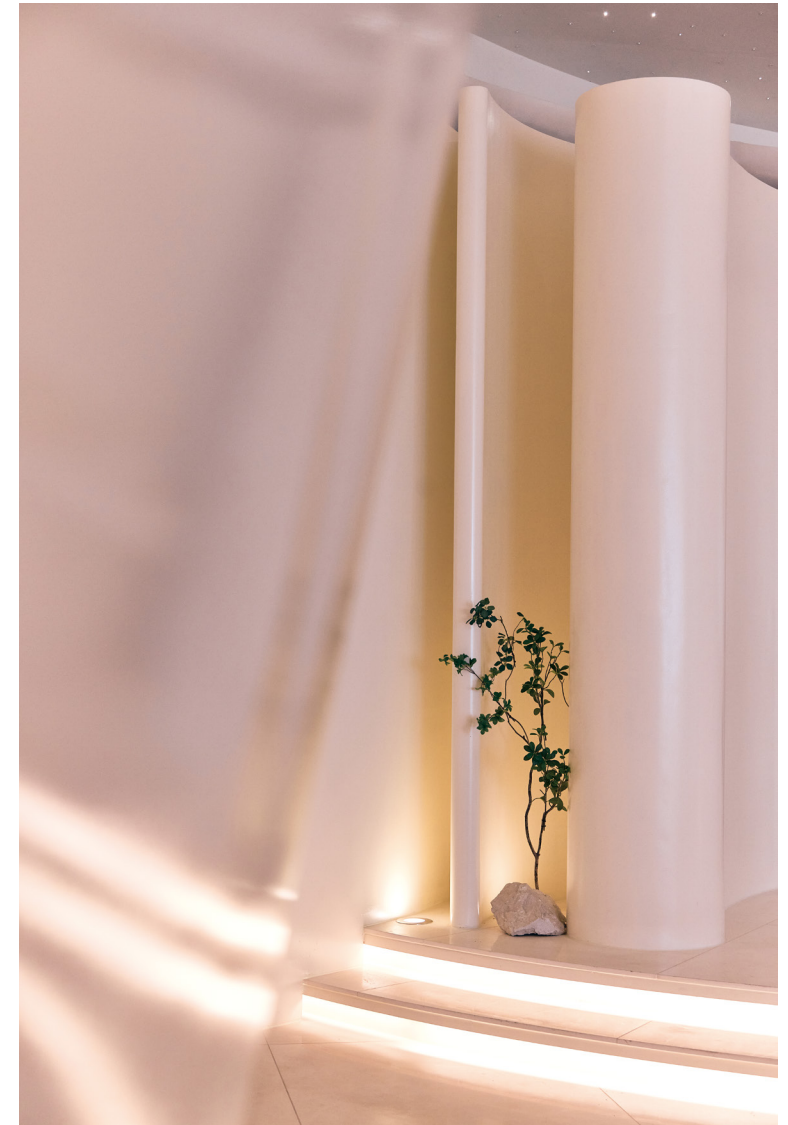


빛으로 연출하는 한회의 순간, 웨딩홀

웨딩 데이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더채플렛대치의 웨딩홀은 이곳만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천장의 운슬처럼 은은하게
흐르는 별빛과 주례 단상 뒤의 조명이 특별한
몰입을 이끈다. 초저녁 밤하늘처럼 여명이
감도는 옅은 빛과 머리 위로 잔잔히 반짝이는
별빛이 웨딩홀을 더 찬란하게 만든다.







도심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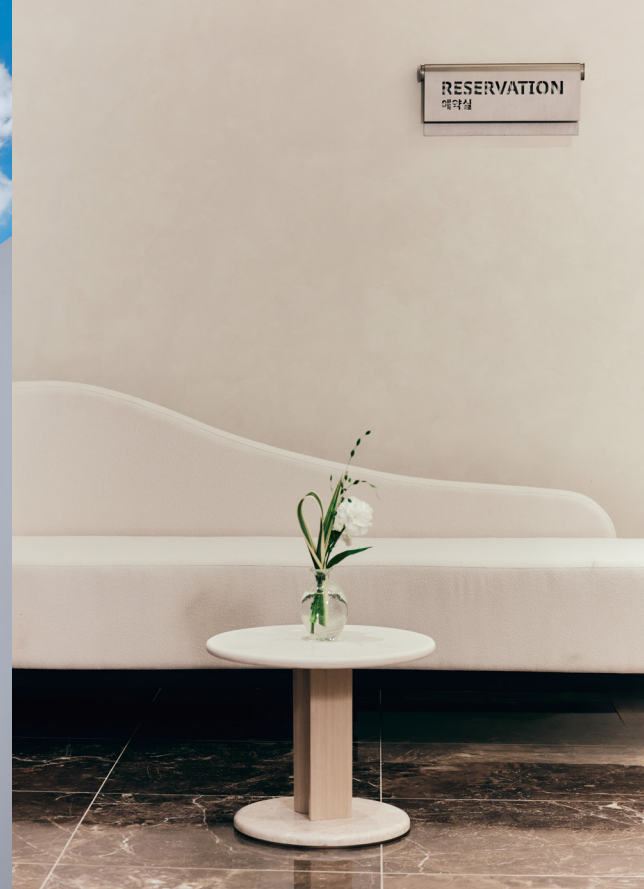
더채플앳대치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공간 곳곳에서 서울 도심의 원경과 마천루 풍경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신부가 입장하는 회랑의 통창, 로비에서 시작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서서히 드러나는 탁 트인 연회장의 창밖, 루프탑의 신부 대기 공간 너머를 확인할 것.



더채플렛대치의 히든 스페이스

더채플렛대치의 가장 아름다운 포토월이자,
야외 웨딩의 로망이 실현되는 공간. 한낮에는
자연광이 아름답게 쏟아지고, 오후에는
빛이 따뜻하게 기우는 것이 매력이다.
롯데월드타워부터 삼성동 일대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전경은 특별한 풍경을 완성한다.





더채플렛대치의 곳곳

더채플렛대치의 로비는 이곳의 얼굴과 같은 공간이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흐르는 웰컴 스테이지와 포토존,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웰컴리셉션이 마련되어 있어 하객을 따뜻하게 환대한다. 로비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2층 연회장은 클래식한 무드로, 작은 테라스가 딸린 3층 연회장은 모던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G층은 상담과 예약을 위한 공간과 혼주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곳곳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그림이 걸려 있어 머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웨딩 공간과 미술이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더채플렛대치가 그에 대한 답을 누구보다 먼저 보여줬다.

Artistic Echo of Lumiglow

더채플과 아펠가모는 2018년부터 웨딩 공간에서 꾸준히 '아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웨딩 업계 최초로 예술 작가와의 대규모 협업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고, 이후 지히, 갑빠오, 베릴, 최랄라 작가와 함께 아펠가모와 더채플 지점에서 전시를 진행해왔다. 특히 더채플렛대치에서는 국내 웨딩홀 업계 최초로 예술 전시를 접목한 아트 큐레이션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갤러리의 전문 큐레이션을 통해 아트를 웨딩 공간에 본격적으로 접목시킨 첫 번째 장소가 된 것이다.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가장 경건하고 특별한 순간에 예술의 감동을 더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안하고자 한 시도다. 이는 웨딩과 예술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경험을 확장하고, 웨딩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다.

웨딩홀은 오랫동안 결혼식을 위한 의례적이고 상업적인 공간으로 인식돼왔다. 이 같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웨딩홀 안의 갤러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구현했다. 단순히 그림 몇 점을 걸어두는 전시가 아닌, 건축 공간의 빛과 동선, 분위기에 맞춘 맞춤형 아트 큐레이션을 통해 결혼식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단순히 예식을 치르는 기존 웨딩홀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함이다. 앞으로의 웨딩홀은 결혼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황홀하게 꽃피는 공간이 될 것이다. 예술 작품이 그 감정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는 매개가 된다면, 웨딩 메뉴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깃든 장소로서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웨딩, 미술, 음악, 미식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SNJ 아트앤매니지먼트와 함께 진행되는 첫 전시의 주제는 '빛과 예술의 몽환적 공명(Artistic Echo of Lumiglow)'. 12명의 작가, 20개 작품과 함께 2025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표인부, 정연희, 강충모, 박용일, 주후식, 최영욱, 고은주 작가 등의 작품이 더채플렛대치 곳곳에 스며들 듯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다.

최영욱 Choi Young Wook

달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 소통의 매개체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달항아리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더없이 세련된 미감을 자랑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바른 삶인가'를 묻고 있는 듯 깊은 울림을 준다. 작가는 달항아리처럼 살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

빛과 예술의 몽환적 공명 – Artistic Echo of Lumiglow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각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서로를 비추며 만나고, 관람객의 내면으로 흘러들어 오래도록 머무는 울림이 된다. 이 몽환적 여정은 더채플렛대치의 G층부터 2층까지 공간 곳곳에 펼쳐져 웨딩홀의 경건함과 예술의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간 2025.09.13~2025.12.31

장소 더채플렛대치 G층, 1층, 2층



고은주 Ko Eun Joo

불안이라는 시대적 정서를 전통의 언어로 해석하고자 하는 작가의 작품은 부적, 설위설경, 지화(紙花)와 같은 전통적 기원 문화를 예술적 도구로 삼는다. 그 속에 담긴 상징성과 대칭, 색의 조화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위로와 안정을 건네는 동시에 우리 조상의 마음과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정연희 Jeong Yeon Hee

작가는 '모시'를 이용해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표현한다. 개망초꽃이라는 아주 작은 개체를 반복해 커다란 조형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모시'라는 자연의 직물에 색을 물들여 골라주하는 기법 역시 '작은 것들을 반복하는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미시적인 것을 통해 큰 주제를 담아낸다.



박용일 Park Yong Il

작가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모두 그려낼 수 없기에, 그것들을 써서 묶는 보따리를 만들었다. 보따리는 추억과 예의, 지혜를 전해온 우리의 문화 속 그릇이다. 속을 드러내지 않기에 무한하며, 그 무한 속에서 각자의 기억과 사연이 다시 태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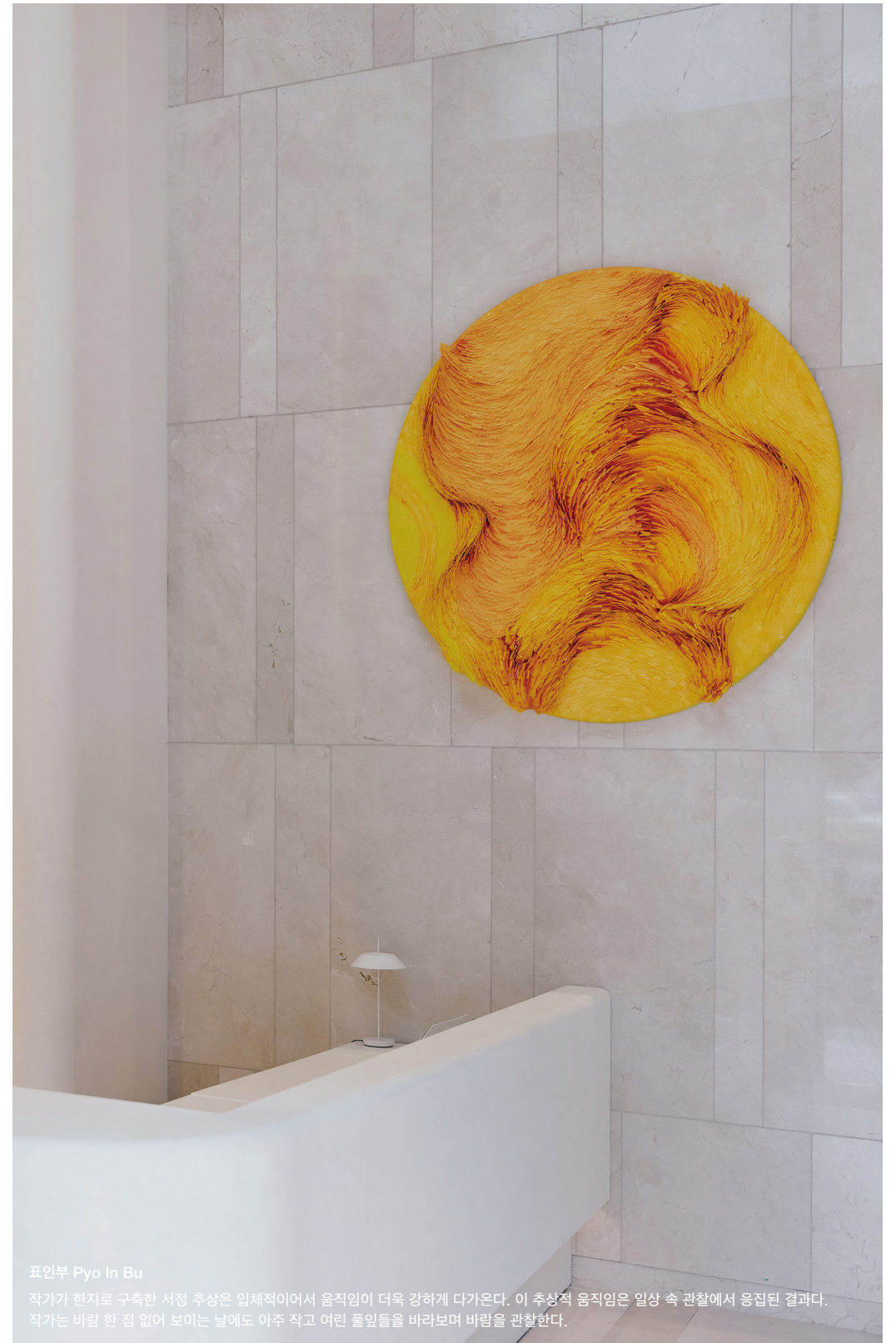


주후식 Joo Hu Sik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생생한 표정과 포즈를 담아냈다. 귀여워 보이는 개를 통해 인간의 시선과 욕망을 풍자하고 인간 사회와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현대적 우화를 완성했다.

강충모 Kang Chung Mo

삶이라는 길 위에서 각자의 선택과 인연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발자취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삶의 한 장면으로 귀결된다. 이 작품은 길 위의 사유를 조각의 언어로 형상화한 흔적이다. 인간이 걸은 여정과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담고 있다.



표인부 Pyo In Bu

작가가 한지로 구축한 서정 추상은 입체적이어서 움직임이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이 추상적 움직임은 일상 속 관찰에서 응집된 결과다. 작가는 바람 한 점 없어 보이는 날에도 아주 작고 여린 풀잎들을 바라보며 바람을 관찰한다.

더채플의 가장 진보한 공간,
더채플엠티대치 프로젝트에 투입된
열정 넘치는 구성원들을 만났다.
김창현 점장과 각 부서의 팀장들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더채플엠티대치를 완성했을까?



(왼쪽부터) 조리팀 이태행 팀장, 예약팀 이용주 팀장, 김창현 점장, 플라워팀 박제연 팀장, 예식팀 이진 팀장.

MASTERS BEHIND THE SCENES

Q. 더채플엠티대치는 어떤 부분이 더 특별한가요?

더채플엠티대치는 다년간의 경험과 웨딩 메뉴로서의 지향점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고객이 들어서는 순간(웨딩카 드랍존)부터 더채플엠티대치의 가장 높은 곳(루프탑)까지 전 층의 동선과 공간 구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중간중간에 배치된 특색 있는 파일럿 공간도 눈여겨볼 만하죠. 로비의 웰컴리셉션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하객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창현 점장

더불어 보다 여유로운 예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20분 간격으로 예식이 진행되는 것은 고객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이후 예식 당일을 떠올렸을 때 정신없는 하루 대신,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과 함께 보낼 여유롭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예약팀 이용주 팀장

프리미엄 호텔 뷔페에 온 듯 모든 요소에 공을 들였습니다. 식재료부터 레시피, 조리 장비 그리고 메뉴 배치와 고객 동선까지 꼼꼼하게 고려해 전체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조사를 깊고 넓게 진행했습니다. 기존 웨딩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조리 장비와 음식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한 차원 다른 수준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조리팀 이태행 팀장

Q.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치밀하고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팀과 어떻게 소통했고, 팀워크는 어땠는지 소개해주세요.

오픈 전 조금도만 믿고 더채플엠티대치를 선택해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고객 접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루미글로우' 콘셉트를 구현하기 위해 시공, 음향, 조명팀과 현장에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어요. 예식팀 이진 팀장

더채플렛대치는?



“그동안 세상에 없던 특별한 공간, 남다른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창현 점장

“모든 신부들의 로망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예약팀 이용주 팀장



소통은 기본이고, 더채플렛대치를 준비하는 모든 팀장님들과는 항상 눈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번 각자 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가 있었기에 서로를 믿고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워팀 박제연 팀장

전형적인 답 같지만, 모든 팀과 빠짐없이 소통하며 함께 준비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오픈 지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예식팀장님께 많은 의지를 했어요. 언제나 소통의 중심에서 현명하게 조율해준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 또한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플라워팀장님 덕분에 빠른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메뉴 구성부터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주신 조리팀장님을 믿고 자신감 있게 고객을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팀 이용주 팀장

Q. 오픈 직전까지, 가장 큰 챌린지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더채플렛대치는 '루미글로우'라는 콘셉트에 맞춘 웨딩홀 천장에 펼쳐진 빛의 물결이 인상적인 공간입니다. 더채플에서 처음 시도하는 콘셉트의 웨딩홀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썼고 예식이 진행되는 공간의 장면 하나하나마다 가장 아름다운 연출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챌린지였습니다. 예식팀 이진 팀장

임시 예약실 오픈 후 재정비를 위해 상담을 임시 중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칫 고객이 원하는 때에 상담을 진행하지 못할까 걱정도 됐지만, 완벽한 준비만이 고객에게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인지했습니다. 예약팀 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채플을 믿고 예식 진행을 결정해준 고객에게 더 큰 신뢰로 보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약팀 이용주 팀장

플라워팀은 생화 작업을 위해 가장 마지막에 세팅을 시작합니다. 공사 일정과 공간 점검이 완료된 후에야 꽃 세팅을 시작할 수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큰 챌린지였습니다. 공간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맞는 화기와 꽃 등을 빠르게 배치해야 했습니다. 철야 작업과 새벽 출근이 많았지만 최상의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플라워팀 박제연 팀장

Q. 더채플렛대치를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이고,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모든 공간에 애정이 깃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고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인 웨딩카 드랍존입니다. 그리고 동선상 가장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공간인 루프탑도 환상적이에요. 카메라를 안 꺼낼 수가 없죠. 김창현 점장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웨딩 신(Scene)을 실현해줄 공간입니다.”

예식팀 이진 팀장



“세프로서 저의 모든 것을 녹여냈습니다. 더 넓은 시야로 공간과 음식 곳곳을 챙겼습니다.”

조리팀 이태행 팀장

“완벽한 웨딩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남는 곳!”

플라워팀 박제연 팀장

저 역시 루프탑 공간을 꿈꿔 왔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야외 예식의 로망이 있을 거예요. 접근성, 날씨, 변수 등의 고민을 이기고 현실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 곳이 바로 어반글로우 루프탑입니다. 주말에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고, 평일에는 도심 속 야외 예식의 로망을 이룰 수도 있어요. 더채플렛대치의 시그니처 조형물과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웰컴 바가 한눈에 보이는 뷰포인트는 상담 고객들에게 늘 반응이 좋습니다. 예약팀 이용주 팀장

저는 웰컴리셉션 공간이 마음에 듭니다. 고객에게 첫인상으로 각인되는 아름다운 로비에 마련된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정중하고 고급스러운 환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식팀 이진 팀장

저는 3층 연회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호텔 뷔페와 같은 만족감을 전할 수 있도록 익숙한 형태의 웨딩 뷔페를 벗어나 조금은 새로운 동선을 구성한 결과물입니다. 조리팀 이태행 팀장

주례 단상에서 웨딩홀 뒤편을 바라봤을 때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플라워로 이루어진 웨딩로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신부대기실에서 이어지는 회랑, 하늘과 롯데타워가 보이는 그 공간도 신부에게 새로움을 주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플라워팀 박제연 팀장

Q. 더채플렛대치의 첫 예식이 치러지는 전날 밤, 다들 잘 주무셨나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공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김창현 점장

준비한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더채플을 믿고 기다려준 신랑 신부에게 완벽한 하루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픈 전날을 마무리했던 기억이에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길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그저 날씨가 맑기를 바랐고요. 예약팀 이용주 팀장

오픈 전날은 늘 그렇듯 시간이 촉박해서 불안합니다. 미완성 상태가 아닌지 걱정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 더채플렛대치를 본 순간 '아니, 완벽한 걸작이잖아?'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플라워팀 박제연 팀장



THE SHAPE OF WEDDING

스페이스 컨텍스터(Space Contexter)로서 공간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라보토리의 정진호 대표를 만나 더채플렛대치의 디자인 스토리에 대해 물었다.

더채플렛대치 공간의 디자인을 구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키워드는 무엇이었나요?

웨딩은 한순간의 의식이지만, 그 기억은 오래 남아야 합니다. '순간을 어떻게 공간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빛이 들어오고 머물며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 감정이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빛의 흐름(Flow of Light)'과 '시간의 여운(Afterscape of Time)'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하나의 연속된 장면으로 보고, 빛을 그 장면의 언어로 삼았어요. 입구를 통과하며 차분해지고, 회랑을 지나며 긴장이 고조되고, 본식의 순간에는 집중이 절정에 이르며, 퇴장 시에는 여운이 감각적으로 남는 흐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빛(Luminary)과 흐름(Flow)을 결합한 '루미너리 플로우(Luminary Flow)' 콘셉트가 나왔군요. 웨딩이라는 의식을 정지된 장면이 아닌, 감정이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봤기에 '빛이 흐른다'라는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밤하늘의 별빛이 흘러내리거나 해 질 무렵 빛이 서서히 바뀌는 순간처럼 자연에서 경험하는 빛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 빛의 변화가 사람들의 감정과 호흡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채플렛대치의 입지와 맥락은 이러한 콘셉트와 잘 맞아요. 차갑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지닌 대치동이라는 도시 안에서 특별한 순간의 극장을 열어야 했는데, '루미너리 플로우'가 이 도시에 잘 맞는 언어였습니다.

다른 상업 공간과 비교해 웨딩홀 디자인은 쉽지 않은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어땠나요? 웨딩홀은 상업 시설과 달리 의식성과 운영성, 감정성과 실용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간입니다. 쇼핑 공간처럼 기능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전시 공간처럼 오직 감각에만 의존할 수도 없죠.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과 스태프의 동선을 모두 분리해야 하며, 사진과 영상 촬영에 필요한 각도와 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예식의 순간순간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와 동시에 운영 인력의 효율성까지 보장해야 하죠. 이런 다층적인 요구를 '기능적 완결성'과 '감정적 드라마'로 풀어나갔습니다. 기능과 관련된 실무적 요건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하고, 하객과 신부가 동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입장, 머무름, 절정, 잔상의 4막 구조로 장면을 나눠 설계했습니다.

더채플의 기존 지점들과 어떻게 연결되면서 어떤 차별화를 꾀했는지 궁금합니다. 더채플은 이미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대치점에서는 브랜드의 유기성을 이어가면서도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브랜드 고유의 장엄함과 격식은 유지하되, 의식의 상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선, 구조, 비례를 존중했습니다. 동시에 대치점만의 개성을 만들기 위해 장식적 화려함을 줄이고 빛의 리듬과 여백의 밀도를 강조했습니다. 또 재료의 질감, 반사와 난반사의 대비, 매트한 표면과 광택의 균형을 통해 시각적 깊이를 구현했구요.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신부가 입장하는 회랑(Hallway)입니다. 회랑을 웨딩이라는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관객과 주인공 모두의 감정을 준비시키는 장치로 봤어요. 회랑에 들어서는 순간, 낮은 조도와 차분한 어둠 속에서 걸음을 옮기다 보면 발걸음에 맞춰 빛이 점진적으로 밝아지면서 메인 홀로 이어집니다. 이는 신부의 호흡과 긴장을 조율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 공간은 하객에게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기하다가 본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랑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예식 집중 모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회랑이야말로 웨딩 전체의 긴장과 설렘을 응축한 공간이기에 더욱 애착이 갑니다.

신부대기실도 특별합니다. 식전에는 신부와 친구가 아니라면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하객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동선에 신부대기실을 배치하고, 문으로 막지 않고 커튼을 살짝 들어 올린 것처럼 오픈된 형태로 설계했죠.

정면에서 바로 보이지 않고 살짝 각도를 틀어야 내외부가 보이는 구조로 신부와 하객 모두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했구요.

더채플렛대치의 아이덴티티가 집약된 웨딩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천장에 설치된 수많은 점광은 순간마다 밀도와 리듬을 바꾸며 의식의 호흡을 시각화하는 장치예요. 입장할 때 점차 밝아지며 긴장을 끌어올리고, 서약의 순간에는 집중된 빛으로 두 사람을 조명하며, 퇴장할 때는 흩어지듯 퍼지면서 여운을 남깁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는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그룹 사일로 랩(SILO Lab)과 긴밀하게 협업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객에게 몰입의 경험을 선사하고, 사진과 영상에서도 완성도 높은 장면을 제공하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콘셉트의 웨딩홀 공간 디자인이 있나요? 빛과 여백 그리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리듬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뮤지엄적 웨딩홀'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뮤지엄은 작품보다 앞서지 않고 작품을 위한 배경이자 매개체로서 빛과 여백을 다루는 공간인데요. 웨딩홀 역시 신랑과 신부라는 하나의 작품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공간이기에 뮤지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이라는 서사는 소비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념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이자 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작품처럼 전시하고, 하객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그 장면의 동시대성을 함께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정진호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앉은 라보토리팀.

FROM SISTER TO SISTER

자매가 2년 간격으로 아펠가모와 더채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누구의 추천이었을까?

대학 입학과 동시에 단둘이 서울살이를
시작해 결혼 전까지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지냈던 김민정, 김민서 자매.
언니 김민정은 2023년 10월 아펠가모
공덕, 동생 김민서는 2025년 3월
더채플앳노현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다.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고 아끼는 자매답게 웨딩홀도 자매
브랜드를 택했다. 아펠가모에서 결혼한
언니와 그 영향을 받아 더채플에서 결혼한
동생을 만나, 각각의 웨딩홀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김민정)의 결혼식에서 동생과 함께.



동생(김민서)의 결혼식에서 언니, 형부와 함께.

결혼 준비의 첫 스텝으로 웨딩홀을 가장 먼저 알아봤을 텐데,
각자 웨딩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니(김민정) 저는 차분하면서 경건한 분위기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질리지 않는 클래식한 웨딩을 원했는데, 그 기준에
가장 부합했던 웨딩홀이 바로 '아펠가모'였어요. 중세 성당을
 옮겨 놓은 듯한 경건하고 클래식한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특히 마리에홀은 우아한 아치형 월에 과하지
않은 상들리에 그리고 옆에 살짝 보이는 검정 피아노까지 제
로망을 제대로 실현해준 곳으로 실물이 훨씬 아름다웠어요.
물론 '밥펠가모'라고 불릴 만큼 맛있는 식사와 공덕의 접근성도
결정에 한몫했구요.
동생(김민서) 언니가 아펠가모 공덕에서 진행한 예식 분위기가
좋아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비슷한 분위기의 식당을 찾았어요.
사실 더채플앳노현도 언니가 추천해줘서 '한 번 가서 보고나
오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결국 이곳을 선택하게 됐죠.

서로 다른 웨딩홀이지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더채플앳노현을
추천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언니 동생이 식을 올렸던 더채플앳노현 라메르홀은 제가
추천했어요. 지인 결혼식으로 방문했는데 안정적인 식
진행, 식사 준비, 직원들의 친절 등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자매인 만큼 취향도 비슷해 동생도 분명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제가 추천하니 바로 계약을
하더라고요.(웃음)

장점이나 특별한 혜택도 있었나요?

언니 동생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시스템이 비슷한
아펠가모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 익숙함과 신뢰가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언니로서 동생의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생 더채플앳노현에서 상담을 하는데 언니가 아펠가모에서
결혼했다며 같은 계열이라 가족 할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어요. 웨딩홀에서 식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직계
가족 할인 혜택 덕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언니 덕분에
마음에 드는 웨딩홀도 선택하고 할인까지 받았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매니까 할 수 있었던 결혼 준비 과정 속
조언이나 질문 그리고 특별하게 전수해준 노하우도 궁금합니다.

언니 제가 미리 경험하다 보니 당시 아쉬웠던 부분을 동생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특히 결혼식 내내 표정 관리를 잘하라고
조언했죠. 친구, 스냅 작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더니 너무
크게 웃거나 과한 몸짓으로 인해 아쉬운 컷들이 많더라고요.
동생한테는 너무 크게 웃기보다는 은은한 미소를 짓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만이 할 수 있는 '썸'
조언을 많이 했어요. 동생에게 안 어울리는 드레스 디자인,
헤어 컬러 등을 돌려 말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을 내며
빠른 결정을 도왔다고 생각해요.(웃음)



아펠가모 공덕에서 결혼식을 올린 언니(김민정).



더채플앳노현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생(김민서).



언니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동생(김민서)의 모습.

동생 제가 키가 작으니까 단상이 없는 채플홀에서는 꼭
높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조언도 해줬어요. 언니도 저도
채플형 식장이었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는 헤어스타일과 컬러,
웨딩드레스 스타일 그리고 부케 디자인까지 물어봤어요.
원래 언니가 예쁘다고 하면 동생은 다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서로의 결혼식을 회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언니 제 결혼식 때 동생이 축사를 해줬어요. 동생은 저보다
눈물이 없는 편인데 축사 첫마디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좋은 날이니 절대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울컥해 눈물이 났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친구들부터
친척들까지 감동해 눈물 바다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사
내내 동생과의 추억을 하나둘 떠올릴 수 있었던 감동적이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각자 결혼했던 웨딩홀을 친구 및 친지에게 소개한다는 가정
하에 추천 멘트를 남긴다면요.

언니 아펠가모는 분위기부터 식사, 접근성까지 평균 이상으로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웨딩홀이에요. 그래서 아펠가모로
웨딩홀을 결정하고 난 뒤 전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아펠가모라면 결혼 준비의 첫 단추인 웨딩홀에서 실패 없는
선택지가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동생 채플 분위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채플 혹은
아펠가모에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밥은
진짜 맛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JUST FOR APELLIAN

결혼 준비의 시작부터 그 이후까지, 예비부부의 모든 여정에 세심한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더채플의 철학이 온전히 담겨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 콘텐츠를 공간이라는 각각의 형태로, 국내 웨딩 문화의 풍격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아펠리안 클래스와 더채플 라운지를 소개한다.

Since 2017, Apellian Class

예비부부에게 결혼 준비와 신혼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펠리안 클래스. 결혼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여정 자체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프리미엄 클래스다. 웨딩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아펠리안 클래스는 예비부부의 정서적 힐링과 깊은 유대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된다. 결혼이라는 특별한 순간을 넘어 그 이후의 삶까지 행복하길 바라는 더채플의 진심이 담겨 있다.



예비부부에게 꼭 필요한 정보 및 영감과 채움의 시간 제공

아펠리안 클래스는 약 8년간 지속되어온 프로그램이다. 매년 다른 주제로 클래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비부부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진행된 ‘Sing your soul, Tea your mind’라는 주제로 기획된 ‘싱잉볼 클래스’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싱잉볼 테라피와 티 테라피를 병행해 편안한 휴식과 깊은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그래서인지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수업이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사운드 배스에 집중하며 진정한 힐링을 얻었다”라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이 전해졌다. 지난 2022년 연말에 진행한 ‘K-Sool 클래스’ 역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다. 다가올 신혼 생활에 도움이 될 집들이나 홈 파티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주와 이에 어울리는 마리아주(Mariage: 결혼, 술과 안주와 조합) 노하우를 꼼꼼히 공유했다. 특히 연말 분위기에 걸맞은 풍성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더해 예비부부들이 잠시나마 결혼 준비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펠리안 클래스를 기획할 때는 예비부부에게 실용적인 정보 외에도 정서적인 케어와 내면의 평화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압박과 피로감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클래스 종료 후 시행되는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희망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이유다.

시대와 트렌드에 맞춰 진화한 아펠리안 클래스

클래스 운영 초반에는 대규모 강연 형식으로 웨딩드레스, 헤어&메이크업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경제 정보 등 실용적인 콘텐츠를 다루며 결혼 준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에 중점을 뒀다. 이후 2021년, 더채플 계약자만을 위한 VIP 공간인 ‘더채플 라운지’를 오픈하며 클래스 운영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웨딩과 관련된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공간 VMD와 전시를 함께 선보이며 클래스를 병행한 것. 소수 정예 인원으로 클래스를 운영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클래스를 도입했다.

2025년부터 아펠리안 클래스에는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겼다. 첫째, 클래스 진행 공간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더채플 라운지에서 클래스를 진행했다면 올해부터는 각 클래스 주제의 특성을 고려해, 참가자들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섭외해 활용하고 있다. 더욱 몰입감 있고 특별한 분위기에서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클래스 콘텐츠의 심화 및 확장이다. 이전에는 주로 결혼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직접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과 피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예비부부 내면의 행복과 정신적 휴식 그리고 관계의 성숙에 초점을 맞춘 클래스를 운영 중이다. 결혼 준비로 지친 예비부부에게 치유와 쉼을 제공하고,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기 위한 변화다.

2025년 아펠리안 클래스 : 아트 테라피 클래스를 통한 소통과 힐링의 시간

지난 8월 28일, 서울 시내 한 갤러리에서는 ‘Color Your Life, Find Your Soul’이라는 주제로 ‘ART&LIFE THERAPY’ 아펠리안 클래스가 열렸다. 도슨트를 통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면서도 예비부부가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놓쳤던 내면의 단면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깊은 내면적 결핍까지 이해해 보다 성숙하고 견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미술 심리 치유 과정이 녹아든 클래스였다. 대한민국 유일한 무예 작가인 이진혁 작가의 전시 <HEART FLOW> 도슨트를 들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보고 경청의 요령을 배우는 ‘Art Docent’ 세션, 서로 등을 맞대고 호흡하는 법부터 배우는 요가와 내면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무드라, 심잉볼의 소리와 진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정화를 돕는 구성으로 이뤄진 최하림 작가의 ‘Sound Bath’ 세션, 내면을 마주하고 생각과 감정을 담은 김정아 테라피스트의 컬러 샌드 보틀 클래스 ‘Art&Life Therapy’ 세션까지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각 세션은 개성이 뚜렷해 마치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색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시간 속에 함께 머물기 위해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선사했다는 부분에서 같은 걸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예비부부들은 한층 더 밝고 친밀해진 모습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아펠리안 클래스는 예비부부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채로운 경험형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웨딩 VIP 라운지, 더채플 라운지

더채플을 계약한 예비부부라면, 꼭 기억해두면 좋을 특권이 있다. 바로 국내 최초 웨딩 전용 프라이빗 VIP 전용 공간인 더채플 라운지가 그것. 더채플 웨딩홀 계약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웨딩 여정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다수의 웨딩 업체가 밀집된 청담동에 자리 잡고 있어 예복 슝, 드레스 슝 투어 일정 사이 잠시 둘러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는 물론 가벼운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어 편안하고 달콤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쉼터의 역할까지 톡톡히 한다. 테이블과 좌석이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어 주변에 구애받지 않고 동반자와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 결혼 준비 사항들을 체크하기에도 적합하다. 더채플 라운지를 다녀간 예비부부들이 특히 칭찬하는 부분은 VIP만을 위한 웨딩 컨시어지 서비스. 웨딩드레스를 포함한 스튜디오, 헤어&메이크업 상품부터 본식 스냅, DVD, 한복, 예물 등 다양한 정보가 가득해 한자리에서 여러 상품을 바로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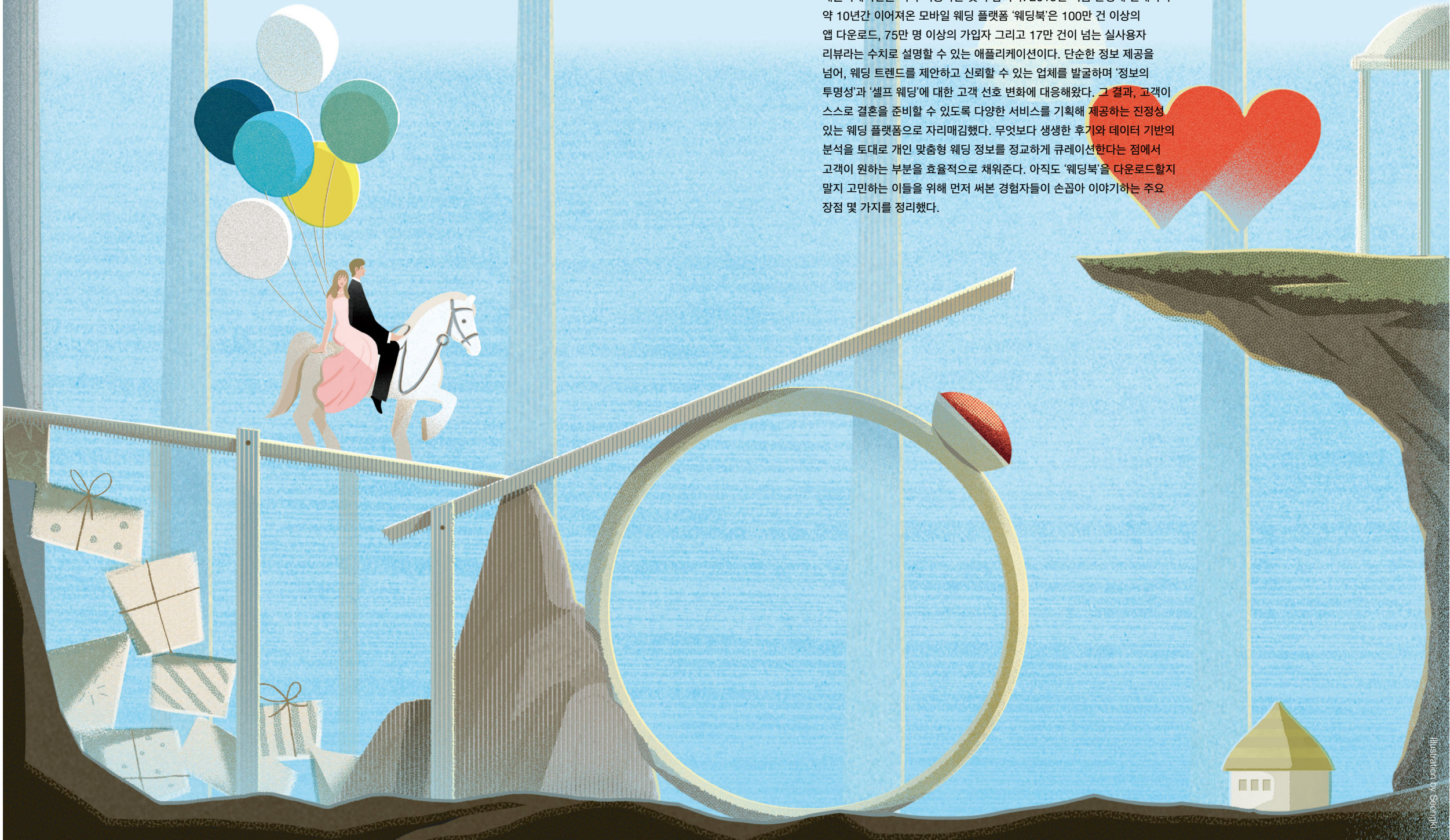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11 4층, 02-545-0139
운영 시간 10:00~19:00, 월요일 휴무



OPEN UP YOUR WEDDING BOOK

스스로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내 손안의 웨딩 정보 앱.

결혼은 인생 최대의 이벤트다. 설렘이 큰 만큼 부담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AI가 인생의 번잡함을 해소해주는 시대이지만 결혼 준비만큼은 무턱대고 '데이터'에만 맡길 순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결혼 정보를 내 침대 위에서 터치 몇 번으로 편안하게 찾아보고 싶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답이다. 2015년 처음 론칭해 현재까지 약 10년간 이어져온 모바일 웨딩 플랫폼 '웨딩북'은 100만 건 이상의 앱 다운로드, 75만 명 이상의 가입자 그리고 17만 건이 넘는 실사용자 리뷰라는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웨딩 트렌드를 제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며 '정보의 투명성'과 '셀프 웨딩'에 대한 고객 선호 변화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고객이 스스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해 제공하는 진정성 있는 웨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생생한 후기와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토대로 개인 맞춤형 웨딩 정보를 정교하게 큐레이션한다는 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채워준다. 아직도 '웨딩북'을 다운로드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먼저 써본 경험자들이 손꼽아 이야기하는 주요 장점 몇 가지를 정리했다.



셀프 플래닝에 최적화되다

웨딩 관련 앱들은 대부분 정보 제공이나 예약 기능을 갖췄지만, 실상은 자사 플래너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한 단순한 연결 구조일 때가 많다. 하지만 웨딩북은 누군가의 개입이나 도움 없이도, 고객 스스로 웨딩을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웨딩홀, 플래너, '스드메', 혼수, 신혼여행에 이르기까지 결혼 준비의 전 여정을 고객이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며, 예약·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 그 시작. 또한 웨딩 관련 업체들의 디테일한 최신 정보와 실제 이용 고객들의 리뷰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통해 고객의 시간을 아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웨딩 플래너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웨딩북 고객의 주요 피드백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코멘트가 있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정보가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영업 전화를 걸지 않아도 돼 좋다”, “직접 선택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고객 의견을 종합하면, 웨딩 정보 비교의 편리함, 정보의 신뢰도, 셀프 플래닝의 간편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웨딩북은 고객이 스스로 준비하되, 그 과정이 훨씬 간편하고 똑똑하게 느껴지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을 지닌다.



정보에 예약으로 이어진다

웨딩북의 초기 버전은 커뮤니티 중심 기능과 일부 품목에 한정된 예약 서비스로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으로 결혼을 준비한다’는 개념이 웨딩 업계에서는 다소 낯설었기 때문에, 고객과 파트너사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 후 웨딩북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서비스 품질 개선과 사용자 경험 중심의 기능 개편을 통해 점차 웨딩 업계의 파트너사가 늘어나면서 웨딩북은 본격적인 예약 중심 웨딩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의 웨딩북은 ‘디지털 웨딩 플랫폼’이라는 점을 심본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모두 마련했다.

이에 지난 2024년부터는 웨딩홀 실시간 예약 및 계약, 플래너 매칭, 혼수 실시간 예약, 레지스트리, 혼수 전문 스토어 등 다양한 기능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예비부부의 약 85%가 결혼 준비를 웨딩홀 검색으로 시작하는 만큼 웨딩북은 타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웨딩홀 정보를 훨씬 더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리뷰도 모두 축적해두었다. 웨딩홀의 ‘실시간 예약 및 계약 서비스’는 호텔을 예약하듯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해 바로 예약과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웨딩홀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다. 2025년 8월 기준, 약 715개의 웨딩홀을 검색할 수 있으며 3만 3,000개가 넘는 리뷰가 업로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예약 플랫폼들이 고객의 요청을 내부 플래너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구조라면, 웨딩북은 고객용 앱은 물론, 웨딩홀 파트너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CRM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해 양측을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이에 고객은 직접 원하는 웨딩홀을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예약 또는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웨딩북의 ‘플래너 매칭 서비스’ 또한 정보가 예약으로 바로 이어지는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웨딩 시장에서는 고객이 플래너 업체를 선택하더라도, 정작 어떤 플래너를 배정받을지는 알 수 없는 구조가 많아 고객의 취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맞지 않는 플래너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웨딩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플래너 업체를 입점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업체에 소속된 개별 플래너의 정보, 스타일, 후기, 실제 포트폴리오까지 상세하게 수록했다. 고객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플래너를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고객 중심의 세심한 부가 기능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리소스로 최대 만족을 끌어내야 하는 결혼 준비는 그 자체로 도전적인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웨딩북은 예산 관리, 일정 관리, 웨딩 트렌드 큐레이션(‘웨딩 북마크’) 등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앱 내에 탑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을 강화해 고객 중심의 편리한 경험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결혼 준비를 하는 고객들이 웨딩홀을 계약한 후에도 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크릿 라운지’ 기능도 갖췄다. 시크릿 라운지는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 웨딩홀 계약자에게만 특별하게 제공되는 혜택 공간으로, 앱 내 전용 라운지를 통해 ‘스드메’, 혼수, 신혼여행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특별 혜택과 함께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한정 프로모션, 파트너 단독 혜택, AI 기반 추천 큐레이션 등을 통해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의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 내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마련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웨딩 레지스트리 서비스가 주목된다. 웨딩 레지스트리는 신랑 신부의 지인들이 편당을 통해 결혼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신גע념 커머스 서비스로, 이를 지원하는 모바일 청첩장을 통해 결혼을 축하하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한다. 웨딩북의 모바일 청첩장은 예식 정보, 갤러리, 지도, 방명록 등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축의금 관련 서비스를 탑재했다. 신랑 신부는 단순히 축의금 계좌를 공개하는 대신 허니문, 신혼집, 가전, 리빙 아이템 등 원하는 테마를 정해 현금 또는 선물 펀딩 방식으로 축하받을 수 있다. 하객들은 커플의 스토리에 공감하며 원하는 목적에 직접 참여해 보다 진심 어린 방식으로 축하를 전할 수 있다. 이 펀딩 기능은 단순한 결제 시스템을 넘어 ‘결혼 준비를 함께하며 의미 있는 축하를 나누는 도구’로서 감성적 연결 경험을 제공한다.



More about the APP

웨딩북 – 결혼 준비 필수 웨딩 앱

2015년 6월, ‘인생의 중대한 프로젝트인 결혼 준비를 조금 더 쉽고,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돕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웨딩 플랫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결혼 준비의 필수 플랫폼이자 결혼 준비 플래너로 자리매김했다.



WELLNESS WE WANT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지치고 예민해지기 쉬운 시간이기도 하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 뻘뻘한 일정 속에서 진정한 심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기 오직 나만을 위한 휴식을 선사하며 가장 아름다운 나를 되찾아주는 공간, 프리미엄 스파 '트리츠'를 소개한다.

T
R
E
A
T
Z

국내 최초 브라이덜 전문 스파

'특별한 사람을 위한 정성스러운 대접'을 뜻하는 트리츠(Treatz)는 국내 최초 브라이덜 전문 스파다. 예비 신부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세분화된 최적의 관리가 이뤄진다. 트리츠 스파의 웨딩 프로그램은 다년간 프리미엄 스파 및 에스테틱, 호텔 스파의 경력을 가진 전문 테라피스트들이 오랜 기획 끝에 완성한 전문적인 브라이덜 케어 서비스를 선사한다. 똑같은 케어도 체형, 생활 습관, 피부 타입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에, 트리츠는 전통적인 루틴이나 기계적인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예비 신부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관리 전 상담을 통해 원하는 웨딩드레스 핏을 완성할 수 있도록 1:1 맞춤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리를 진행할 때마다 예비 신부의 컨디션을 체크해 동일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한다.



쉼이 필요한 신부를 위한 프라이빗 공간

트리츠는 진정한 휴식과 관리에 대한 해답을 ‘완전히 나만의 리듬으로 쉴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찾았다. 모든 공간은 완벽히 분리된 개별 룸으로 설계돼 있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단순한 커튼이나 파티션이 아닌 완벽한 벽체로 구획된 공간에서는 외부 소음을 차단해 옆방의 대화 소리나 다른 사람의 발소리 없이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다. 커플이 관리 가능한 관리실도 있지만, 연인이라도 각자의 피로도, 컨디션, 긴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1:1 맞춤 테라피를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상대의 페이스에 맞추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함께 와도 각자의 방식으로 쉴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동행’이라는 트리츠의 철학이 담겨 있다.



오감을 깨우는 섬세한 감각 경험

트리츠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크라 향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진다. 이렇게 세심하게 조율된 공간은 방문객을 진정한 휴식의 여정으로 이끈다. 가장 섬세한 배려는 ‘웰컴 터치’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의 따뜻한 타월로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이 세심한 배려는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다는 안내이기도 하다. 감각으로 전해지는 또 다른 세심함은 유기농 순면 제품에서 온다. 테라피가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바로 피부에 닿는 ‘천’이다. 그래서 트리츠는 신생아가 사용하는 100% 순면 거즈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한다. 이 순면 거즈 덕분에 고객은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따뜻하다는 감각적 인식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 신체의 근육만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의 결까지 풀어주는 이 같은 섬세함은 트리츠를 다시 찾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친환경 기반의 개인 용품을 매번 교체, 제공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쾌적한 프리미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완벽한 웨딩 라인을 위한 맞춤형 케어

가장 인기가 많은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은 웨딩 고객과 현대인 맞춤 ‘얼굴 소멸 케어’다. 특히 직각 어깨와 슬림한 페이스 라인이 필요한 예비부부에게 사랑받고 있다. 피부와 시술로 피부가 민감해져 강한 마사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페이스 딥티슈 접근을 통한 근육 중심의 이완과 데콜테 집중 케어도 마련되어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 케어를 받고 싶은 이들에게는 ‘웨딩 케어 신부 관리(상체 60분)’를 추천한다. 드레스에서 가장 잘 보이는 등 뒤통, 부유방, 팔 라인을 집중 케어해 군살 정리와 라인 정돈에 효과적이다. 또 ‘웨딩 90분 관리(신랑 신부 상체&페이스)’는 가슴, 복부, 어깨 등 상체 전체와 얼굴 라인을 집중 케어해 드레스 핏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라운드 솔더 개선에도 효과적이라 신부는 물론 신랑에게도 인기가. ‘프레스티지 케어 딸라스 슬리밍 프로그램’은 예식 직전 파이널 관리로 강력 추천하는 프로그램. 해조류 성분을 활용한 전신 디톡스 케어로, 결혼 준비로 쌓인 피로와 부종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지속가능한 웰니스 라이프를 제안하다, 트리츠 클럽

트리츠는 스파를 넘어 웰니스 플랫폼 ‘트리츠 클럽’을 함께 운영하며, 현대인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다채로운 클래스를 선보이고 있다. 예비 신부를 위한 웰니스 워크숍도 꾸준히 진행하며 결혼 준비로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다. 또 다양한 웰니스 브랜드와 협업해 이너 뷰티, 스킨케어 등을 소개하며 특별한 경험의 선택지를 늘려가는 중이다. 앞으로도 발레, 요가, 필라테스, 스킨케어 워크숍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경험을 꾸준히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더체플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홈 프레그런스 '피카케(PIKAKE)'는 재스민 삼박(Jasmine Sambac)이라고도 불리는 흰 꽃 '피카케'에서 이름을 따왔다. '향기의 왕'이라고 불리는 피카케의 향기와 청초한 흰 꽃 한 다발을 떠올리게 하는 부케가 공간 속에 은은하게 퍼지면, 달콤하고 산뜻한 기분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른다.

피카케는 눈부시고 찬란했던 웨딩의 순간을 영원한 사랑의 향기로 간직할 수 있도록, 그 특별한 모티브를 가장 아늑한 집 안까지 이어주는 마음으로 탄생했다. 첫 제품으로 선보인 디퓨저는 침실과 거실, 서재 어디에 뒀도 은은한 향으로 공간에 세련된 무드를 더해준다. 디퓨저를 사용해본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 필로우 미스트, 룸 스프레이를 연이어 선보였다.

THE SCENT OF ETERNAL LOVE

순간은 향기로 기억된다.
더체플의 추억을 집에서도 향으로 누리는 방법.

Diffuser | 공간을 채우는 아로마 필로소피

플로럴 부케의 순수하고 청초한 향 사이로 화이트 머스크와 베티베르가 시원함을 더하는 피카케 디퓨저는 신선하고 달콤한 기운으로 공간을 한층 매력적으로 채워주는 제품이다. 디퓨저 리필 용액을 공병에 따른 후 리드 스틱을 꽂아 사용하면 된다.

Pillow Mist | 하루를 토닥여주는 슬립 메이트

벨벳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피카케 필로우 미스트의 아로마가 심신을 안정시키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사용하기 전 제품을 가볍게 흔든 뒤 침구와 거리를 두고 분사하면 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사용한다.

Room Spray |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하얀 꽃들의 향연

청초함을 간직한 피카케 룸 스프레이는 원하는 공간에 싱그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아로마를 즉각적으로 선사하는 제품이다. 사용하기 전 제품을 가볍게 흔든 뒤 리프레시가 필요한 공간에 2~3회 정도 분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Made by

PIKAKE

어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피카케의 특별한 향기는 이필근 조향사의 손과 코에서 탄생했다. 이필근 조향사는 300년 전통의 프랑스 향장 협회에서 운영하는 조향 교육 기관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프랑스 조향 교육법을 전수하는 GIP(Grasse Institute of Perfumery, 그라스 조향 스쿨)의 아시아 최초 졸업생이다. 그가 설계한 피카케의 향은 단순한 꽃향기를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각적으로 변화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지녔다. 상큼한 시트러스 노트로 문을 열어 청량하고 경쾌한 첫인상을 남기고, 이어지는 플로럴 부케는 따뜻한 낭만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머스크와 베티베르의 깊고 안정적인 잔향이 공간과 마음에 고요한 여운을 남겨, 일상의 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승화시킨다. 전문 조향사가 의도한 '순수함과 관능의 조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피카케는 순수한 향만큼이나 패키지 구성도 섬세한 노력으로 마무리했다. 불순물이 없는 고품질 재생지와 무염소 표백 소재,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사용했다. 디퓨저 공병, 디퓨저 리필액, 리드 스틱, 필로우 미스트, 룸 스프레이가 한 박스에 담긴 기프트 세트는 나를 위한 선물은 물론, 행복을 추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선물에도 제격이다. 더체플에서 예식을 진행한 모든 고객에게 예식 100일 기념 기프트로 제공되며, 더체플 라운지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Top note

Yellow Mandarin, Bergamot
베르가모트와 옐로 만다린을 품은
시트러스 계열 향이 상큼함과
싱그러움을 안겨준다.

Middle note

Ylang-ylang, Jasmine, Lily
재스민, 일랑일랑, 릴리로 이어지는
신선한 플로럴 향이 우아한
감미로움을 남긴다.

Base note

White Musk, Vetiver
화이트 머스크 위에 더해진 우디한
베티베르가 매혹적인 관능미를
떠올리게 한다.

SMART & SEAMLESS

투명성을 위한 첫 발걸음, 스마트예약 시스템.
팔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23년 8월 14일,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의 스마트예약 시스템이 처음으로 고객에게 선보였다. 웨딩 업계의 오랜 문제로 언급되어 왔던 '정보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선제적인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답답함이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모바일과 디지털에 익숙한 예비부부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결과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용률이 말해준다. 시행 이듬해의 시스템 사용자 수는 초기 대비 30% 증가했고 2025년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예약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유용성과 편리성이 고객의 정보 검색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증이다.

스마트예약 시스템은 국내 웨딩 업계의 첫 도전인 만큼, 시스템 구축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시스템 기획부터 검증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이어졌다. 웨딩 업계의 관행을 깨기 위한 설득 과정에도 섬세한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고객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하면, 그간의 노력은 충분히 보상된다. '웨딩을 투어'를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이 잦아 불편했던 점이 해소되었다는 의견,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계약 혜택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가격 투명성에 만족한다는 의견,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앞으로도 스마트예약 시스템은 지속적인 점검과 리뉴얼을 통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실시간 잔여 타임 확인

각 웨딩홀의 예약 가능한 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유연하게 예약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

지점별, 시즌별, 시간대별 가격 정보는 물론, 진행 중인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까지 한눈에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정교한 맞춤형 필터

서울 지역 9개 지점의 12개 웨딩홀 중에서 보증 인원, 예약 날짜, 시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하고 정렬해 원하는 웨딩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편리한 '뽐' 기능

다양한 검색 조건을 매번 입력하지 않고도 예약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다.

간편한 상담 예약 및 즉시 확정

원하는 날짜에 맞춰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즉시 확정돼,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원스톱 온라인 예약 계약

마음에 드는 웨딩홀, 날짜, 견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온라인에서 즉시 계약 체결과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할 수 있다.

생생한 VR 투어 체험

고품질의 사진과 360도 VR 기능을 통해 현장에 있는 듯 공간을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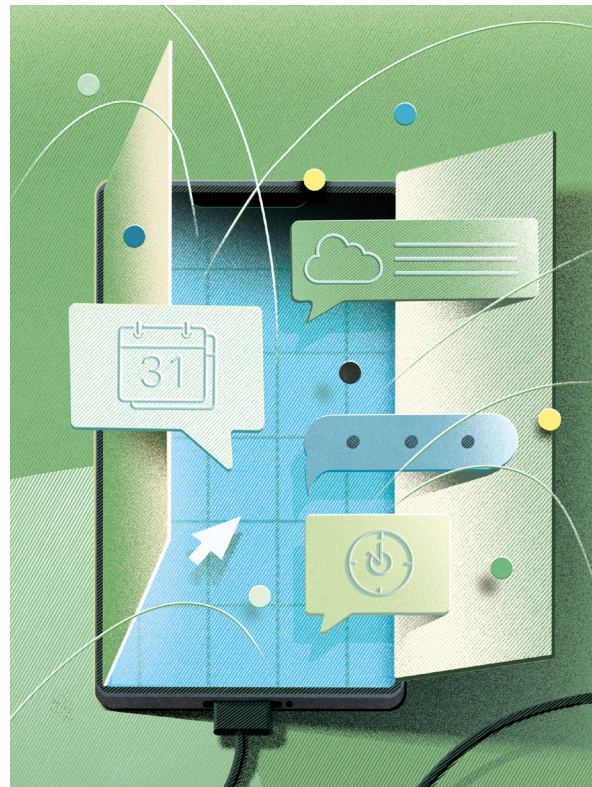


Illustration by Seonki



SUSTAINABILITY FOR EVERY MOMENT

웨딩 메뉴를 운영하는 일도 지속가능성이 적용되는 영역.
그래서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나아가 의무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은 이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새로운 소통 언어로 자리매김했다. 웨딩 메뉴를 신중히 선택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어떨까?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소비자의 마음에도 'ESG'와 '지속가능성'이 미래지향적 고려 가치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 않았다. 화려함 속에서도 환경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편리함 속에서도 모두의 포용적 가치를 행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은 이 같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웨딩 업계의 선구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사랑받는 소비자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ESG를 향한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더채플의 가장 중요한 ESG 활동 중 하나는 공간에서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실천이다. 더채플은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이동에 제약이 있는 고객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정문을 광폭으로 설계해 출입구 경사로를 적용하거나, 정문과 각 층 연결 통로에 리프트와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이동의 제약을 최소화해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또 연회장에서 제공하는 커피 원두를 사회적 기업 '춤추는 북카페'를 통해 공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춤추는 북카페'는 장애인 및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질적 자립을 돕는 활동을 하는 작업장이다. 또한 더채플이 만드는 프레그런스 제품 '피카케'에도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재생지, 무염소 표백 천연 펄프, FSC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 소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놓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2일,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더채플앳청담, 더채플앳논현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처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해 앞으로도 더채플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은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즐거운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결혼식은 울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재밌고 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아이디어! 다 같이 어깨동무하며 "1, 2,
3 파이팅!" 외치기로 결정했어요. '누구 하나 울면
절대 안 돼!'를 다짐하며 그날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이슬, 2025년 1월 더채플앳청담 커티지홀

결혼식엔 어느 때보다 감정이 넘쳐난다.
즐겁고 몽글하며 애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고객들로부터 받았다.

눈부신 트레스와 꽃길 위의 발걸음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표정, 축하의 마음을 꼭 눌러 담은 포옹 그리고 웃고 울던 하객들의 생생한 얼굴들. 그 모든 장면이 모여야 비로소 하나의
웨딩이 완성된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의 웨딩'의 순간을 아펠리안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아 하나하나 지면에 옮겼다.
사진 속 그날의 공기, 마음을 흔드는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의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You Make Me So Emotional



정신없는 결혼식을 마치고 사진을 받아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부모님보다는 반가운 친구들과 지인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엄마의 시선은 제게 머물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부모의 사랑은 제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황규리, 2025년 5월 아펠가모 선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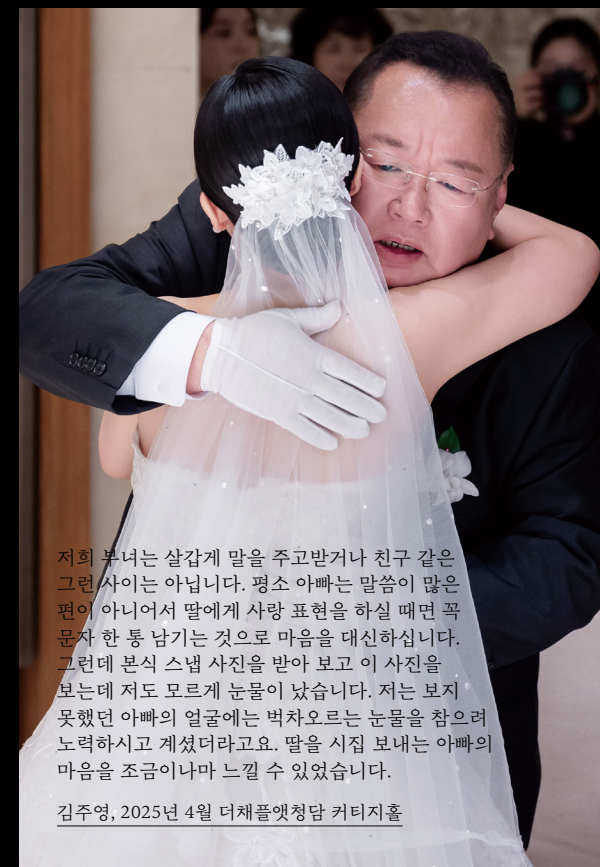
K-장녀로서 넉넉하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 자랐지만 열심히 삶을 일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할 때 수많은 감정들이 겹쳐 눈물을 참지 못해 서로 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마지막까지 엄마 품에 안기지 못했지만 엄마의 저 표정이 잘 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이 장면이 가장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김선혜, 2025년 6월 루벨 강동



신랑 키가 188cm, 제가 172cm입니다. 덕담을 위해 단상에 서 계신 친정아버지가 "아이고, 이거 신랑 신부 키가 너무 커서 하객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신랑 신부는 제 앞에서 줄 떨어져주세요!"라고 해, 시부모님을 비롯한 하객들이 모두 '뺑' 터진 순간에 찍힌 사진입니다. 밝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결혼식이라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손예지, 2024년 9월 더채플앳청담 커티지홀



저희 부녀는 살갑게 말을 주고받거나 친구 같은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평소 아빠는 말씀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딸에게 사랑 표현을 하실 때면 꼭 문자 한 통 남기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하십니다. 그런데 본식 스냅 사진을 받아 보고 이 사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던 아빠의 얼굴에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노력하시고 계셨더라고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주영, 2025년 4월 더채플앳청담 커티지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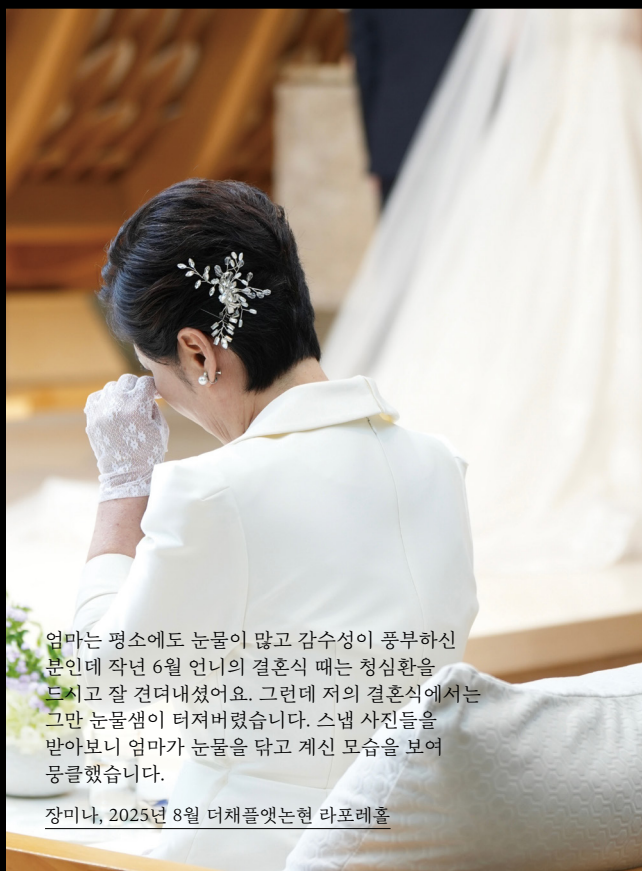
결혼식 내내 유일하게 긴장이 조금 풀렸던 순간이
저때였어요. 아빠를 보니 웬지 웃음만 나왔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아빠의 모습은 귀엽게만 보였고,
아빠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지요. 그 순간, 저희 부녀는 말없이
웃으며 수많은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김나경, 2025년 7월 아펠가모 선물



엄마는 평소에도 눈물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인데 작년 6월 언니의 결혼식 때는 청심환을
드시고 잘 견뎌내셨어요. 그런데 저의 결혼식에서는
그만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스냅 사진들을
받아보니 엄마가 눈물을 닦고 계신 모습을 보여
뭉클했습니다.

장미나, 2025년 8월 더채플앳논현 라포레홀



어릴 적 아빠가 일찍 떠나신 뒤, 제 걸을 묵묵히
지켜주신 건 엄마였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신부
입장을 하던 순간, 함께해온 세월과 서로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진 길 위에서 마주한 엄마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 그 특별했던 신부 입장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도연, 2025년 5월 아펠가모 공덕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하늘이자
슈퍼맨이었던 아버지가 저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저를
안심시켜주며 지어주시던 따뜻한 미소가 잘 담겨
있어 제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사진입니다.

오혜진, 2025년 6월 아펠가모 잠실



저와 남편 모두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이
한 분씩 밖에 안 계셨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부모님과 함께 입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으로 받아봤을 때 부모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셨습니다.

장라영, 2024년 11월 루벨 강동



긴장된 마음으로 웨딩로드를 걷고 있던 중, 하객들의
“우유 빛깔 신부!”라는 환호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굳어 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아빠와 눈이
마주치자 둘 다 참지 못하고 활짝 웃어버렸죠. 설렘과
기쁨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모든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기, 2024년 12월 더채플앳논현 라메르홀



Pro Tips for the Big Day

결혼식을 잘 치르기 위해 사전에 꼭 알아둬야 할 '웨딩 데이'의 팁은 무엇일까?
수많은 예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아펠가모와 루벨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그들이 전해준 소중한 팁을 세심하게 기록했다.

Ready!

예식 직전 유의 사항

신랑 신부 및 직계가족은 보통 예식 몇 시간 전에 도착하면 좋을까요?

- 신랑 신부는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와서 놓고 온 것은 없는지, 예식에 대해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헤어&메이크업 숍이나 집에 포토테이블 사진, 식권, 2부 드레스를 두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직계가족은 예식 시작 1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는 편이 좋습니다. 식당에서 혼주 메이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4시간 전 도착을 권해드려요.

신부대가실에서 지인과의 사진 촬영 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스스로 연예인이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입 모양은 '아~'로 유지하면 자연스러운 표정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3초 이상 상대방과 눈맞춤하는 연습도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보고 일정 시간 포즈를 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신부가 지인의 팔짱을 끼는 포즈로 촬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부가 약간 뒤쪽으로 자리 잡아 얼굴이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지인이 팔짱을 끼려고 하면, 빠르게 저지 후 직접 팔짱을 끼보세요.
- 영상도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예쁜 표정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신부대가실에서의 드레스 관련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드레스를 고를 때 선호하는 소재와 예쁜 디자인도 좋지만 장시간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부케도 마찬가지로! 부케를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울 수 있어 키와 팔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인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에는 드레스 옆자락을 위로 걷고, 최대한 간격을 붙여 앉은 뒤 드레스를 그 위로 펼쳐야 예쁩니다.
- 실크 드레스라면 구김은 불가피하기에 그냥 편하게 움직이고, 입장 10분 전쯤 드레스 헬퍼에게 스팀 다리미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팀기는 미리 드레스 헬퍼에게 요청해주세요.

하객을 맞이하는 신랑이 하객들과 인사할 때 외워두면 좋을 멘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맛있는 식사 준비했으니 식사 꼭 드시고 가세요.”
- “신부대가실이 앞에 있으니, 사진 촬영도 같이 해주세요.”
-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객을 맞이하는 신랑이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신부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얼굴, 헤어 터치는 안 돼요. 몇 시간 공들인 메이크업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반갑다고 하객과의 포옹 및 심한 움직임은 삼가주세요. 코르사주가 떨어지면 복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 회사 동료나 선배를 부모님께도 정중히 소개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하객에게 반가운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예식 전에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예식 4~5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른 오전 시간대 예식이라면 간단한 샐러드나 간식 정도를 드시는 게 좋고, 늦은 오후 시간대의 예식이라면 정식 점심 식사도 괜찮습니다.

Action!

예식 중 유의 사항

웨딩로드를 걷는 신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 신부는 난생처음 무거운 부케를 들다 보니 점점 힘이 들어가 어깨와 승모근이 부각된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힘을 빼고 부케를 잡아주세요.
- 아버지와 손잡고 입장 시, 서로의 간격이 벌어지면 신부의 거드랑이가 하객에게 개방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손을 너무 높게 잡아 어색한 포즈가 될 수도 있고요. 천천히 걸으며 속도와 간격을 맞춰보세요.
- 드레스를 발로 차듯이 웨딩로드를 걸어야 한다는 팁을 생각하다가 드레스를 너무 발로 뱅뱅 차면서 걷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 끝을 발로 살살 밀듯이 걸어주세요.
- 텐션이 높은 친구들에게 웨딩로드와 가까운 자리에 착석할 수 있도록 미리 살짝 부탁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입장할 때 신랑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 너무 경직된 입장보다는 요즘은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 등의 연출도 자주 보입니다. 편하게 입장해보세요.
- 차분한 입장을 원한다면 문이 열린 후 정중하게 인사한 뒤 천천히 출발해주세요.
- 허리를 숙여 인사할 때는 걸음과 동시에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구부정한 자세가 많이 남을 수 있어 잠깐 멈춰 천천히 양쪽에 인사드린 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예식 상황에서 신랑 신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 사전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예물 교환 진행 시 손이 부어 반지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눈물이 많다면 드레스 헬퍼에게 미리 티슈나 면봉 준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식 중 눈물이 흐를 것 같다면 고개를 숙여 눈물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추천해요. 볼을 타고 흐르면 메이크업 위로 눈물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신랑 신부가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사진과 영상에 보다 예쁘게 기록됩니다. 양옆 친구들을 보느라 서로 다른 곳을 보지 말고, 한 방향씩 한 번에 같이 바라보면서 행진해보세요.
- 체감상 예식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식을 즐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식이 끝난 후 연회장에서의 유의점도 알려주세요.

- 피로연 진행 시, 반가운 친구들에 감사를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지인, 친척 분들에게도 꼭 잊지 말고 정중한 감사 인사를 해주세요.
- 얼굴을 잘 몰라 어른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부모님께 어느 분께 인사드리면 될지 먼저 여쭙보는 것도 좋습니다.
- 메이크업은 꼭 집으로 돌아가서 지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 순간 사진이 찍힐지 모릅니다.
- 집이나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신랑 신부가 함께 셀카 혹은 '네컷사진'과 같은 즉석 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마세요.

Tips from

김민아 팀장
(아펠가모 궁덕 예약팀)

김동완 매니저
(아펠가모 반포 예식팀)

용현정 팀장
(아펠가모 신흥 예약팀)

엄희경 매니저
(루벨 강동 예식팀)

결혼 준비 기간은 설렘이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그려온 완벽한 결혼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Every Moment Counts,
The Wedding
Has Already Be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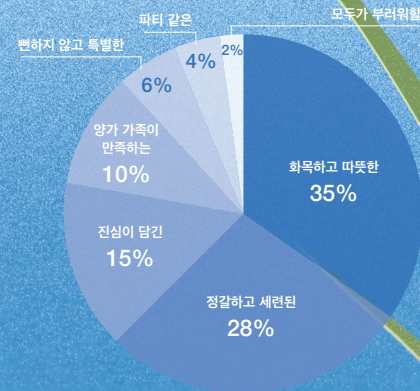
Wedding Trends & Research

수많은 웨딩 서비스와 브랜드 중 더체플, 아펠가모, 루벨에서 예식을 마친 고객들의 선택이 가장 집중된 곳은 어디일까?

웨딩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작은 결정들이 모여 내가 원하는 웨딩을 완성하기에 그 과정은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민으로 정제되기도 한다. 이럴 때 결혼 준비를 경험한 선배들의 실제 선택을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지난 1년 동안 더체플, 아펠가모, 루벨에서 웨딩을 치른 아펠리안 1,027커플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웨딩 브랜드를 왜 선택했는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웨딩드레스 습, 헤어&메이크업 습, 스튜디오 촬영, 본식 촬영, 웨딩 정보처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항목들을 아펠리안 커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브랜드 순으로 정리했다.

INSIGHT

느낌 좋은 웨딩,
나의 웨딩은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1. Wedding Dresses

REFINED TEXTURES

최근 웨딩드레스 트렌드는 소재의 고급화에 주목한다. 단순히 화려한 장식보다 원단 자체의 질감을 살리고, 착용했을 때 신부가 편안함을 느끼는 테일러링이 강조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을 완성하는 정제된 소재들이 새로운 럭셔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MODERNIZED ROMANTIC

모던한 실루엣에 은은한 로맨틱 디테일을 더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꽃잎처럼 섬세한 장식이나 입체적인 플로럴 디테일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깔끔한 드레스에 '한 방울의 낭만'을 더하는 방식이 웨딩드레스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DRESS BRAND OF THE YEAR

1위 시작바이이명순 *4년 연속 1위 **6.6%**

1989년 이명순 웨딩드레스를 설립한 국가대표 웨딩 디자이너 이명순 디자이너가 2011년 선보인 두 번째 웨딩 브랜드다. 젊고 감각적인 하이엔드 웨딩드레스를 선보인다. 특히 실크 소재, 레이스, 비즈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모던하고 우아한 대중적 라인의 드레스가 많다.

2위 우아르 **4.8%**

실크 드레스를 선호하는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우아르는 지난해 6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다.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자체 제작 드레스를 다양하게 선보여 유니크한 스타일을 원하는 신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3위 로브드 K **4.3%**

권민정 디자이너의 이니셜 K를 딴 이 브랜드는 청순하고 세련된 감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의 포인트로 절제된 화려함을 원하는 신부들이 주로 찾는다.

그 밖의 순위	
황정아웨딩	3.9%
안나스포사	3.3%
라포레	2.6%
르블랑	2.6%
마리에드오늘	2.6%
셀리아틀리에	2.6%
아들리에로리에	2.3%

2 Hair & Makeup

LOOSE LOW BUN

자연스러움은 여전히 웨딩 헤어의 핵심 키워드다. 단정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매력을 살린 낮은 위치의 로우번 스타일이 특히 사랑받고 있다. 느슨하게 흘러내린 듯한 곁을 살려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포말함과 내추럴함을 동시에 담아내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BLUR SKIN MAKEUP

광택감을 강조하던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한층 진화한 흐름이 나타났다. 매끈하게 불러 처리한 듯한 피부 표현이 대세로 떠오르며, 은은한 생기와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구현한다. 과도한 하이라이트 보다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피부 곁을 강조해 신부 본연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HAIR&MAKEUP BRAND OF THE YEAR

1위 애브뉴존 **9.2%**

애브뉴존은 뷰티 브랜드 준오헤어가 2006년 청담동에 세운 플래그십 헤어&메이크업 살롱이다. 신부의 개성을 은은하게 녹인 깨끗하고 맑은 메이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켜냈다.

2위 김할란뮤제네프 **9.1%**

지난해 3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김할란뮤제네프는 피부 표현, 색조, 헤어 전반에서 신부들의 니즈와 개성을 세심하게 담아낸다. 특히 깔끔한 피부 표현과 우수한 유지력으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 밖의 순위

김청경헤어페이스	5.3%
정샘물	4.8%
알루	4.7%
정남	4.6%
히엘	4.6%
헤움	3.5%
이경민포레	3.3%
뫼	3.0%

3. Tuxedo

CLASSIC IS THE BEST

클래식한 블랙 컬러 턱시도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다. 최근에는 매트한 질감의 원단을 활용해 본식에서 격식을 갖춰 착용한 뒤, 간단한 수선을 거쳐 데일리 슈트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예식 이후 경조사까지 고려해 차분한 차콜 컬러를 택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PERSONALIZED COLOR

얼굴에 잘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 컬러’ 트렌드가 신랑의 턱시도 선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자신의 피부 톤과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선택하면 얼굴이 한층 화사해 보이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세련되게 완성된다.

TUXEDO BRAND OF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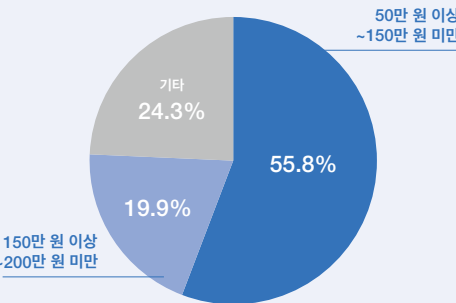
1위 포튼가먼트 *3년 연속 1위 8.0%

맞춤 정장 전문 브랜드 포튼가먼트는 예복은 물론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스타일의 맞춤복을 선보인다. 1:1 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형과 스타일을 분석하고, 50년 경력을 자랑하는 마스터 테일러의 손길로 정교하게 완성한다. 전국 지점은 물론 해외까지 확장하며 그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다.

그 밖의 순위	
헤리츠 테일러	4.3%
슈트페브릭	3.6%
까사비토	3.5%
루쏘소	3.2%

Tuxedo Budget

예비 신랑의 턱시도를 준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5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인 전체 아펠리안의 55.8%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19.9%로 집계됐다.



4. Wedding Jewelry

웨딩 주얼리는 전통적 상징성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하우스 브랜드부터 심플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의 인기가 높다. 웨딩 주얼리 구입 가격대는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19.6%로 가장 높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라 답한 비율이 19.1%로 뒤를 이었다. 작년 조사에서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이하로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웨딩 주얼리 비용이 줄어든 추세다.



WEDDING JEWELRY BRAND OF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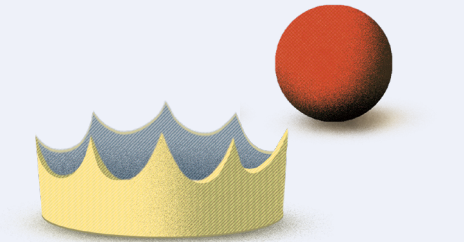
1위 까르피에 13.2%

전 세계 로열 패밀리와 셀러브리티의 사랑을 받아온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 다양한 디자인과 유행을 잘 타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2위 아크레도 10.4%

독일 커스터마이징 웨딩 밴드 브랜드인 아크레도는 디자인, 색상, 두께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자신만의 특별한 웨딩 밴드를 만들고자 하는 커플에게 인기가.

그 밖의 순위	
티파니앤코	6.8%
종로 주얼리 업체	4.9%
부쉐론	4.6%
불가리	4.6%



5. Hanbok

한복은 예비부부들의 선택 비율이 예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업체별 스타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항목으로 남아 있다. 전통적 예복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간결한 실루엣, 은은한 색감, 가벼운 소재를 통해 혼주가 실제로 착용하기 편안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HANBOK BRAND OF THE YEAR

1위 온세한복 *4년 연속 1위 12.7%

4년 연속 아펠리안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브랜드. 고급스러운 배색과 원단으로 전통과 세련미를 동시에 연출하는 한복을 선보인다.

2위 베를한복 9.8%

시크한 블랙 톤, 부드러운 파스텔 톤, 트렌디한 시스루 스타일까지 양가 부모님과 부부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한복을 제안한다.

3위 테힐라한복 7.1%

전국 16개 지점을 운영하는 테힐라한복은 뛰어난 접근성과 폭넓은 디자인으로 많은 예비부부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다.

그 밖의 순위	
박씨네우리옷	4.5%
휘랑	3.4%
반가의우리옷	3.3%

INSIGHT

WEDDING EVENT

상견례와 본식을 제외하고 아펠리안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는 무엇일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프러포즈 이벤트(47%)로, 결혼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벤트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다음으로는 브라이덜 파티나 청첩장 파티(24%)가 뒤를 이었으며, 본식용 커플 콘셉트 영상(19%)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결혼식을 하나의 공연처럼 연출하거나 유쾌한 영상을 통해 하객과 소통하려는 최근 웨딩 트렌드를 반영한다.

INSIGHT WEDDING MUSIC

신부 입장곡 TO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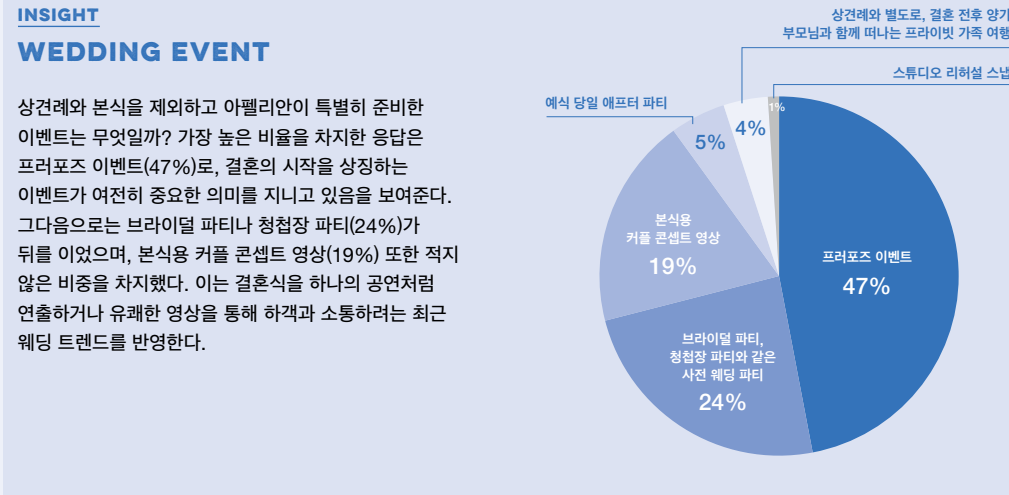
- She - Elvis Costello
- A Thousand Years - Christina Perri
- Love Wins All - 아이유(IU)
- Darling - 박효신
- Angel - Sarah McLachlan
- Can't Help Falling in Love - Elvis Presley
- How Long Will I Love You - Ellie Goulding

웨딩을 완성하는 디테일 중 하나는 음악이다. 신부 입장곡과 축하가는 어떤 곡이 사랑받았을까? 입장곡 1위는 단연 'She'로, 온화한 멜로디와 웨딩에 딱 맞는 가사로 사랑받고 있다. 2024년에 발표된 'Love Wins All'도 순위에 포함돼 신부 입장곡의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펠리안의 70%는 신부 입장곡을 이와 같이 선택한 이유로 "웨딩 및 신부 등장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축가 TOP 7

- 두 사람 - 성시경
- 오르막길 - 윤종신 & 정인
- 감사 - 김동률
- 아로하 - 쿨(Cool)
-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 이승철
- 너의 모든 순간 - 성시경
- 소나기 - 아이오아이(I.O.I)

아펠리안이 가장 많이 선택한 축가는 편안한 멜로디의 '두 사람'이었다. 이 밖에도 들으면 눈물이 차오르는 '오르막길', 절절함이 두드러지는 '감사', 경쾌한 느낌의 '아로하' 등은 세대를 아우르며 꾸준한 사랑받았다. 한편 해당 곡을 선택한 이유로는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곡이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 Wedding Studio & Snap & Videography

전통적인 웨딩 스튜디오 촬영은 여전히 인기 있지만, 최근에는 자연광을 활용한 내추럴 무드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세트 위주의 정형화된 사진보다 일상적인 순간을 담아내듯 자유롭고 감각적인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다.

WEDDING STUDIO BRAND OF THE YEAR	
1위 비마이 스튜디오	2.2%
2위 클로드	2.2%
3위 페레스튜디오	2.0%

본식 스텝은 결혼식의 리얼한 순간을 기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작가적인 연출과 표현이 반영된 촬영이 강세다. 연출된 장면보다 가족과 하객, 예비부부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담아내는 것이 필수로 자리 잡았다.

WEDDING SNAP BRAND OF THE YEAR	
1위 마인드그라피	5.3%
2위 언아더데이	3.6%
3위 사계절 스튜디오	3.4%

본식 영상은 단순 기록을 넘어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적인 영상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편집과 음악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특히 선호된다.

WEDDING VIDEOGRAPHY BRAND OF THE YEAR	
1위 웨딩미	19.7%
2위 스냅스타	5.1%
3위 레이블	4.2%

INSIGHT
WEDDING PLANNING CHANNELS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 탐색 시 아펠리안이 가장 많이 찾는 채널은 무엇일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온라인 웨딩 카페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솔직한 리뷰와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어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채널이다. SNS 채널을 통한 정보 탐색 비율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스레드 등 시각적이고 개인화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는 유형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실제 경험 기반 후기와 개별 사례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결혼 준비 전반에서 나타나는 개성화·다양화 트렌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7. Online Platform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 조사는 물론, 예약과 후기 확인이 가능한 웨딩 플랫폼을 이용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펠리안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답했으며, 다양한 정보를 얻기 좋다는 답변(25.9%)과 함께 포인트와 캐시백 혜택이 만족스럽다는 답변(7.4%)이 뒤를 이었다.

ONLINE PLATFORM BRAND OF THE YEAR	
1위 다이렉트결혼준비	42.0%

네이버 카페 기반의 결혼 준비 플랫폼으로, 실제 후기가 많고 이용자 수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비대면 상담과 포인트 제도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예비부부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다.

2위 아이웨딩	16.7%
---------	-------

국내 대표적인 웨딩 전문 플랫폼 중 하나로, 방대한 제휴 네트워크를 활용한 합리적 패키지와 이벤트 혜택이 강점이다. 결혼 준비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정보 탐색부터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3위 웨딩북	11.4%
--------	-------

웨딩북은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웨딩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해 웨딩홀 예약과 계약까지 진행 가능한 국내 최초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그 밖에도 결혼 준비 품목 위주로 구성된 스토어에 레지스트리 개념을 도입해, 신랑 신부의 위시리스트에 맞춘 결혼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특화된 서비스다.

8. Honeymoon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허니문을 준비하는 아펠리안의 선택지도 더 개별화되고, 더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아펠리안 중 절반을 훌쩍 넘는 숫자인 62%가 별도의 허니문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허니문을 직접 준비한다고 답한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여전히 허니문리조트(7.7%), 팜투어(7.6%), 하나투어(3.5%) 등 전문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니문 여행지로는 발리, 몰디브, 하와이와 같은 글로벌 휴양지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서유럽의 전통 관광 국가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허니문이 단순한 휴양 여행을 넘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특별한 여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HONEYMOON OF THE YEAR	
발리	16.4%
스페인	10.5%
몰디브	9.7%
하와이	9.0%
이탈리아	7.6%
칸쿤	7.4%
유럽	6.3%
스위스	5.9%
프랑스	5.8%

MOST SELECTED WEDDING BEAUTY CARE BRAND

결혼 준비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정 중 하나가 뷰티 케어. 아펠리안이 결혼 준비를 하며 찾은 피부과를 포함해 얼굴과 바디 마사지 스킵 브랜드의 순위를 정리했다.

마사지 스킵(얼굴)	
1위 약손명가	22.2%
2위 트리츠	20.2%
3위 겔이고은	6.9%

마사지 스킵(바디)	
1위 트리츠	28.3%
2위 약손명가	17.4%
3위 겔이고은	4.0%

피부과	
1위 아비쥬	6.7%
2위 유엔아이의원	4.2%
3위 톡스엔필	3.9%
4위 블리비의원	3.0%

Apellian Research

- 1. 조사 대상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더채플, 아펠가모, 루벨 예식 완료자 총 1,027커플
- 2. 조사 기간
2025년 8월 11일~2025년 8월 18일
- 3. 조사 방법
자사 고객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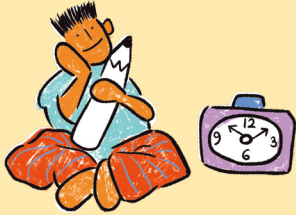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할지 정하는 게 가장 먼저다.

결혼 준비는 신랑 신부의 성향에 따라 그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모든 것을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편하다'는 타입도 있다.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걸까? 정답은 없다.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파악하고,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 계획형과 즉흥형 스타일의 결혼 준비 타임라인을 비교하고, 각 단계별 주의 사항과 꿀팁까지 정리했다.

Wedding Solution J

안벽한 계획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J형이라면?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스타일로, 결혼 준비는
마치 꼼꼼한 프로젝트
계획표와 같다.



- **사전 조사에 철저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부터 각종 결혼 박람회, 커뮤니티 후기, 웨딩 잡지 등을 섭렵하며 정보를 모으고 웨딩홀, '스드메' 업체 등 모든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다.
- **타임라인을 중시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D-day를 기준으로 상세한 타임라인을 만든다. '12개월 전에는 웨딩홀 계약', '8개월 전에는 스드메 확정'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요**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둔다. 야외 예식에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거나 신혼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편.

YOUR WEDDING, YOUR WAY

Wedding Solution P

유연한 선택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P형이라면?

결혼 준비는 핵심적인 것부터
빠르게 결정하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스타일로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 **직관에 의존하는 편이에요**
수많은 정보를 모으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몇 가지 옵션만 두고 빠르게 결정한다. '여기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이 드레스가 예쁘다'와 같은 직관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 **중요한 것부터 처리해요**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웨딩홀과 '스드메'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일정은 여유롭게 진행한다.
-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원하는 웨딩홀 예약이 마감되면 비슷한 분위기의 다른 홀을 빠르게 찾아보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Wedding Timeline J

D-12개월
웨딩홀 투어 및 계약

D-11개월

플래너 및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

Tip. 플래너는 결혼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각자 원하는 플래너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 직접 검색해보고 맞춰 나가는 것도 좋다.

Tip. 선호하는 촬영 작가나 드레스 디자이너가 명확하다면 무엇보다 예약을 선점할 것! 콘셉트를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D-10개월

신혼여행 조사 및 예약

Tip. 평균 10개월 전부터 항공편과 숙소의 예약이 열린다. 일찍 준비하면 가격이 합리적인 얼리버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다.

D-7~8개월

신부 드레스 투어 및 신랑 예복, 웨딩 밴드 결정

Tip. 웨딩 밴드를 맞춤 제작할 경우 제작 기간은 약 두 달. 하지만 백화점에서 웨딩 밴드를 구매할 경우, 원하는 사이즈가 없으면 장기간 대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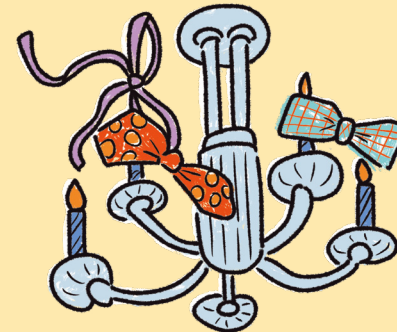
D-6개월

웨딩 스튜디오 촬영

Tip. 스튜디오 촬영은 본식 6~7개월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수정본 수령까지 약 3개월이 소요돼, 모바일 청첩장 제작까지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일정이다.



Wedding Timeline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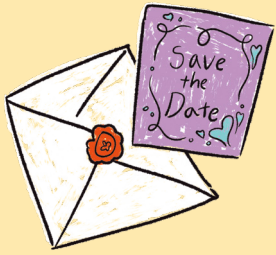


D-6개월

웨딩홀 및 '스드메' 계약

Tip. '스드메'를 한 번에 계약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Tip. 스튜디오 촬영은 늦어도 본식 4개월 전에는 진행해야 한다. 웨딩홀을 확정 후, 가장 먼저 스튜디오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D-5개월

피부 시술 및 에스테틱, 운동 시작

Tip. 피부 시술 및 관리는 5~10회 이상 꾸준히 받아야 만족도가 높으며, 다운타임(회복 시간)과 멍이 드는 것을 고려해 본식 1개월 전부터는 멈추는 것을 권장한다.

D-4개월

청첩장 디자인 및 제작

Tip.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디자인부터 문구까지 특별한 청첩장을 만들 수 있다.

D-4개월

스튜디오 촬영, 피부 시술 및 에스테틱

Tip. 스튜디오 촬영 때는 보정으로 커버가 가능하니 다이어트만 하고, 본식 전 3~4개월 전부터 피부 시술 및 집중 관리를 진행하면 된다.

D-5개월

신부 드레스 투어 및 신랑 예복, 웨딩 밴드 결정

Tip. 마음에 드는 드레스 스타일을 한 곳만 지정하면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자신의 감을 믿고, '추구미'에 맞는 한 곳만 골라본다.

D-3개월

양가 혼주 의상 및 헤어&메이크업 스타일 결정

Tip. 본식 당일 양가 부모님 헤어&메이크업 받을 시간 및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할 것.

D-2개월

축가, 주례, 사회, 축사, 축의금 데스크, 가방 맡을 친구, 부케 받을 친구 등 본식에 역할이 필요한 지인 섭외 및 최종 체크

D-3개월

신혼여행지 결정, 청첩장 제작

Tip. 특가 항공권을 노리거나 단기 여행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ip. 촬영 후 셀렉 및 수정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갈 선수정본을 먼저 요청해 받아보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D-1개월

최종 본식 드레스 가봉, 부케 시안 상의, 웨딩홀에 최종 식순 & 음원 전달

Tip. 부케는 계절에 가능한 소재들을 확인해야 하므로, 예식 2~3주 전 준비하는 것이 좋고, 부케와 함께 부토니에, 혼주 코르사주까지 함께 준비할 것.

D-1개월

최종 본식 드레스 가봉, 부케 시안 상의, 웨딩홀에 최종 식순 & 음원 전달

D-2개월

양가 혼주 의상 및 헤어&메이크업 스타일 결정, 본식에 역할이 필요한 지인 섭외

D-1주

본식 당일 필요한 현금 및 준비물 준비

Tip. 신혼여행 짐(여권 포함), 포토레이블 사진, 혼주 의상, 신랑 신부 개별 준비물 등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도록 한다.

D-1주

본식 당일 필요한 현금 및 준비물 준비, 섭외한 지인 최종 체크



Illustration by 수빈

Pro Tips from Planner

hair

웨딩 스튜디오 촬영 시 헤어 변형을 원할 경우, 스튜디오 예약과 동시에 헤어 변형도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좋다. 헤어 변형 출장은 예약이 어려운 편이라 빠른 예약을 추천한다.

시간 및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스튜디오 촬영 전부터 피부 시술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만, 보통 스튜디오 촬영 때는 보정을 다 해주시 다이어트만 해도 충분하다.

skincare

드레스 투어는 습당 1시간 정도. 이동 시간을 고려해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예약한다. 또한, 촬영용과 본식 드레스가 구분되어 있어 상담 시 원하는 방향을 미리 전달하면 도움이 된다.

드레스 투어가 끝난 당일 최종 선택을 하면 별도의 베네핏을 제공하는 습들도 있다. 습마다 차이가 있는데 촬영 드레스 특별 서비스, 프리미엄 라인 업그레이드 등이 있다.

부케는 드레스와 메이크업 콘셉트에 맞춰 고르면 통일감 있는 예식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웨딩플래너나 플로리스트에게 추천을 받거나, 직접 원하는 꽃 사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flower

청첩장은 최소 3개월 전에는 디자인을 확정하고 주문해야 한다. 인쇄와 배송 기간을 고려해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invitation

인쇄 전 청첩장 시안의 오타자 여부와 날짜, 시간, 장소 등 중요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게 확인해야 한다. 최종 인쇄 후에는 수정이 어려울 수 있다.

honeymoon

휴양형인지 액티비티형인지 커플 성향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신혼여행지를 선택할 것.

항공권은 얼리버드를 노리면 좋고, 성수기를 피하면 숙소 퀄리티도 올라간다.

여권 만료일이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자.

웨딩 슈즈, 패백 의상, 부케, 반지 등 결혼식 당일 필요한 모든 물품을 미리 체크리스트에 작성하고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다.

본식 2~3주 전부터 최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자, 축가, 주례, 스냅 사진작가 등 모든 관계자에게 연락해 최종 리허설 및 일정 조율을 진행할 것.

신랑 신부의 헤어&메이크업 스타일 시작 시간과 마무리 후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혼주 메이크업 진행 시간 역시 함께 확인하자.

photo

평소 사진 촬영을 어색해한다면 배경 중심의 촬영을 진행하는 스튜디오를, 표정과 포즈에 자신 있는 스타일이라면 인물 중심의 촬영을 진행하는 스튜디오를 선택하자.

습마다 주력하는 스타일이 있으니, 미리 인스타그램이나 화보를 보면서 원하는 스타일의 드레스가 많은 습 중에서 2~3곳 정도로 추릴 것. 그 이상은 결정하는 데 더 어렵고 시간만 걸릴 뿐이라 '비추'!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평소보다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dress

평소 원하는 스타일 외에 습에서 추천하는 드레스도 꼭 한 번 입어보길. 생각지도 못했던 드레스가 '인생 드레스'가 될 수 있다.

웨딩홀에 따라 어울리는 드레스 소재나 타입이 다르니, 체형과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과 소재 외에 웨딩홀의 분위기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허니문은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마친 뒤, 둘만의 온전한 휴식이자 진정한 부부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특별한 여행이다. 진짜 만족스러운 신혼여행은 '어디'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커플의 성향과 스타일을 먼저 파악한 뒤, 이에 맞는 여행지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Capella Bangkok

Finding the Perfect Honeymoon

The Questions

신혼여행은 단순한 '첫 여행'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하고, 누군가에겐 두 사람만의 진짜 시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현실적인 제약과 서로 다른 취향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쉽다. '완벽한 허니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함께 대화를 나누며 진짜 원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은 그 여정의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서로에게 '신혼여행'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 두 사람이 허니문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추구하는 여행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요. 낭만인가요, 휴식인가요 아니면 일생일대의 모험일까요?

꼭 해보고 싶었던 신혼여행의 로망이 있다면 하나씩 잡아볼까요?

- ☒ 관광, 휴양, 액티비티 등 원하는 여행의 콘셉트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신혼여행은 시간과 예산, 체력이라는 현실적인 변수 속에서 종종 긴장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자의 로망을 공유하면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결혼 전 함께한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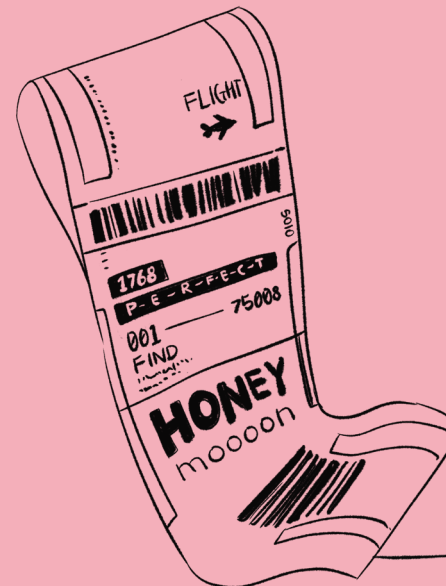
- ☒ 지나고 나니 더 소중했던 여행의 기억 속에서, 두 사람만의 스타일과 즐거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좋았던 포인트를 신혼여행에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행할 때 서로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평가해보세요.

- ☒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에요. 나도 몰랐던 내 여행 습관 혹은 상대를 배려하느라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행 중 위기가 생겼을 때, 서로의 대처 방식은 어땠나요?

- ☒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성향은 여행 만족도를 좌우하기도 해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함께 넘겼는지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치를 조율해보세요.



The Types



서로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고를 차례다. 하지만 막상 여행지를 정하려고 하면, 세상은 넓고 가고 싶은 곳은 너무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두 사람의 여행 성향을 분류해보는 일이다. 허니문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누면, 그에 꼭 맞는 여행지를 훨씬 수월하게 고를 수 있다. 아래 여섯 가지 커플 유형 중 우리는 어떤 스타일일까? 앞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대화를 바탕으로 커플의 스타일을 정의해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1. 슬로우 트래블 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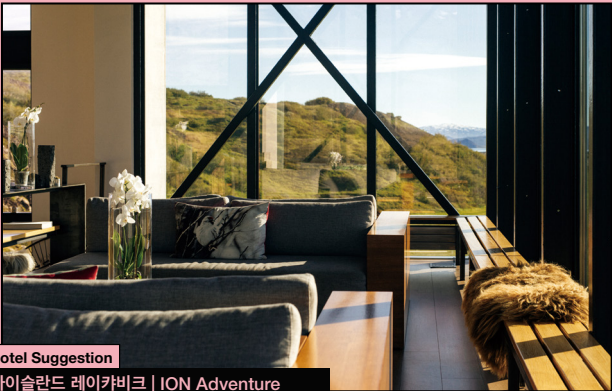
그림 같은 풍경, 감성에 젖어드는 숙소, 느긋한 산책, 고객을 감동시키는 호텔리어의 서비스를 좋아하는 여유 넘치는 스타일의 커플이라면 이 유형을 기억하자.

In My Mind
“여행이 곧 휴식이지. 그리고 신혼여행은 고립이 최고야.”, “제발 며칠만이라도 도시를 떠나 한적함을 즐기고 싶어.” “신혼여행 아니면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해보겠어?”

City Suggestion
그리스 산토리니, 체코 프라하, 일본 교토, 모리셔스, 세이셸



Hotel Suggestion
세이셸 | Six Senses Zil Pasyon
세이셸의 프라이빗 아일랜드에 자리한 럭셔리 리조트로, 탁 트인 인도양 전망과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자랑한다.



Hotel Suggestion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 ION Adventure
화산 지대 위 독특한 디자인의 호텔로, 오로라 관측과 자연 탐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2. 모험+로맨스 추구형

평소 여행을 떠나면 하이킹, 서핑, 스카이다이빙 같은 액티비티를 놓치지 않는 커플의 허니문 유형. 액티비티와 신혼여행의 정체성의 절묘한 밸런스를 놓치고 싶지 않은 스타일.

In My Mind
“신나는 액티비티가 빠진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걸?”, “휴양만 하면 신혼여행이 은근 심심하다니까!” “맨날 친구들끼리만 했는데, 너랑 같이 액티비티에 빠져보고 싶어.”

City Suggestion
뉴질랜드 퀸스타운, 하와이 마우이,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3. 시티 보이와 시티 걸의 ‘먹방’ 추구형

활기찬 도시, 반짝이는 야경, 작고 특색 있는 부티크 숍, 구경거리가 넘치는 현지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선 맛볼 수 없었던 미식과 와인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스타일.

In My Mind
“호텔 수영장에 누워 있는 것보다 시장 구경이 더 재밌어.”, “결혼식 준비하느라 식단을 열심히 했는데, 이젠 맘껏 먹고 싶다!”, “여행에서 먹는 것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지?”

City Suggestion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덴마크 코펜하겐



Hotel Suggestion
덴마크 코펜하겐 | Nimb Hotel
티볼리 가든 안에 자리한 부티크 호텔로, 동화 같은 건축미와 친밀한 서비스가 매력적인 호텔.



Hotel Suggestion
태국 방콕 | Capella Bangkok
차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최신 럭셔리 리조트로, 세련된 객실과 세계적 수준의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다.



4. 소울을 채우는 경험 추구형

큐레이션이 돋보이는 미술관이나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박물관, 모던한 건축물 탐방이나 지역 문화 체험을 즐기는 여행 스타일.

In My Mind

“휴양 여행, 문화재 여행, 쇼핑 여행, 먹방 여행 다 해봤는데 돌고 돌아 이제는 문화 경험 여행까지 온 것 같아.”, “문화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를 여행하는 게 즐거워.”, “신혼여행이라고 굳이 화려할 필요는 없지.”

City Suggestion

오스트리아 빈,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Hotel Suggestion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 Amanjiwo

세계 최대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사원을 정면에 두고 지어진 리조트로, 자바의 전통 건축과 고요한 자연이 어우러져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Illustration by 수빈



Hotel Suggestion

독일 베를린 | Hotel de Rome

옛 은행 건물을 개조해 역사적인 품격과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담은 럭셔리 호텔. 베를린 중심에서 오페라하우스와 미술관을 가까이 두고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Hotel Suggestion

몰디브 | Soneva Secret

한 섬 전체를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는 독보적인 콘셉트로, 단 한 팀만을 위한 완벽한 신혼여행을 선사한다.

5. 일상 탈출 올인클루시브 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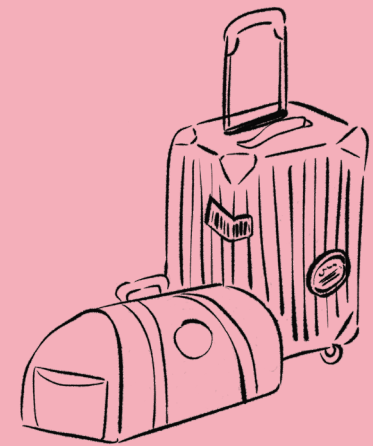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이 모든 기능이 집약된 리조트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한 여행 스타일. 다양한 스파 메뉴, 호텔 연계 액티비티, 조식은 물론 식사까지 포함된 여행.

In My Mind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도시와 리조트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야.”, “결혼 준비를 위해 하나하나 신경 쓰며 몇 달을 보냈더니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여행이 너무 필요해.”,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이럴 때 아니면 언제가?”

City Suggestion

몰디브, 인도네시아 발리, 멕시코 칸쿤



Hotel Suggestion

포르투갈 리스본 | Four Seasons Ritz Lisbon

도심 속 언덕에 자리해 리스본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호텔로, 예술 작품 같은 인테리어와 세심한 서비스가 특징이다.



6. ‘인생 길다’ 실속과 여행자 추구형

평소 특가 항공권, 알짜 숙소, 교통 편의성을 기준으로 여행지를 고르는 이들을 위한 신혼여행 스타일. 가성비에 만족을 느끼는 타입.

In My Mind

“신혼여행이 해외여행 마지막도 아닌데, 너무 ‘물뽕’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가는 게 좋지.”, “기절할 것 같은 물가를 계속 신경 쓰며 노는 것보다는,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도시로 가고 싶어.”, “우리 결혼 비용 꽤 많이 썼잖아.”

City Suggestion

태국 치앙마이, 포르투갈 리스본

Bouquet of Lifetime

웨딩의 인상은 부케에서 시작된다.

나만의 부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소개하는 부케 잘 만드는 플라워 슝 4.

부케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신부의 성격과 분위기, 취향을 반영하기에 '신부의 포트레이트'라고도 불린다. 요즘은 자연스러움과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해 신부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케가 인기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각자 다른 개성과 스타일의 부케를 선보이는 플라워 슝을 찾아 어떻게 하면 나만의 부케를 잘 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BOLD & MODERN

대담한 아름다움, 모무재
@momuzae



❷ 부케 제작 시 집중하는 부분
부케는 결혼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의 마지막 퍼즐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모무재만의 감성과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부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꽃의 퀄리티예요. 물 밖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는 부케이기에 사입 단계부터 좋은 꽃을 넉넉히 고르고, 컨디셔닝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에 꽂아두지 않으면 금방 시드는 꽃은 본식 부케로 추천하지 않아요.

❶ 콘셉트와 시그니처 스타일
모무재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 꽃을 통해 심상(心象)을 표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시그니처 부케는 새 나라의 왕비에게 어울리는 상징물 형태의 '퀸즈 완드(Queen's Wand)'예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영국 여왕의 대관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형태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완성했습니다.



❸ 보람을 느낀 사례
한국가구박물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부님이 기억에 남아요. 한창 부케를 찾아 헤매던 중 '퀸즈 완드'를 보자마자 바로 이 부케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결혼식 이후 공유해주신 사진을 보는데 고즈넉한 한옥 분위기와 퀸즈 완드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여기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특별한 날이면 모무재의 꽃을 찾아주시거든요.



❹ 예비 신부에게
'나를 닮은 부케', '나다운 부케'를 선택하셨으면 해요. 사실 신부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자신과 닮은 것들을 무의식중에 고르세요. 만약 잘 모르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정만 해주시면, 제가 아름다운 그림 속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꽃으로 완성해 드릴게요.

모무재 대표 허혜원



SEASONAL & NATURAL

계절의 낭만, 소피토
@_soffitto

❷ 부케 제작 시 집중하는 부분
신부님의 키와 드레스의 풍성함, 결혼식 장소 콘셉트에 맞춰 부케의 형태와 사이즈, 소재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현장에서 하객이 바라보는 모든 각도와 사진작가의 앵글 및 영상 촬영에 담기는 것까지 고려해 부케 전체의 밸런스와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❶ 콘셉트와 시그니처 스타일
소피토는 상담부터 스타일링 제안, 디자인 완성 및 배송까지,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고객 중심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플라워 브랜드입니다. 꽃보다는 꽃을 든 신부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디자인하고 그날의 계절을 담아 부케를 선물합니다.



❸ 보람을 느낀 사례
스스로 꽤 까다롭다 자칭하시며 복잡하고 디테일한 요청이 많았던 신부님이 있었어요. 요청 사항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상담한 후 소피토 시선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완성해드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부케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찬사와 후기를 전해주셨고요. 무엇보다 그 이후에도 특별한 날이나 꽃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❹ 예비 신부에게
웨딩 스튜디오 촬영용이나 신부대기실용 부케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부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도 다양한 튜토리얼이 있어요. 하지만 계절에 따라 꽃의 컨디션 관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식은 전문 플로리스트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피토 대표 친절환소피토씨



COLOR POPS

생동감 있는 색채, 오엑스엑스
@oxx_floral

❷ 부케 제작 시 집중하는 부분
결혼식은 주로 ‘폴샷’으로 기록되다 보니, 신부님 키나 손 크기 등과의 적절한 비례감을 고려해 부케가 너무 크거나 납작하지 않도록 작업합니다. 컬러 부케의 경우, 꽃이 모두 다른 색일지라도 명도나 채도, 한·난색 계열 등 한 가지의 기준은 반드시 맞추려고 해요. 예를 들어 따뜻한 색감의 실크 드레스라면 난색 꽃을 사용하고 원색 중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톤으로 채도를 맞추는 것처럼요. 이외에도 꽃의 질감이나 형태 또한 드레스와 어울리도록 선정하고, 식장의 실내외 여부를 고려해 드라마틱한 느낌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❶ 콘셉트와 시그니처 스타일
오엑스엑스는 ‘맞고 틀린 건 없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처럼, 편견에 갇히지 않고 늘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플라워 스튜디오입니다. 정형화되지 않고 강렬한 색감의 대비를 준다든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소재를 쓰는 등 유니크하면서도 재미있는 포인트를 가진 부케를 만들고 있습니다.



❸ 보람을 느낀 사례
오엑스엑스만의 부케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고 만든 첫 번째 디자인이 있습니다. 블랙 카라와 흰 덴파레를 사용해 흑백의 대비를 준 볼드한 부케였어요. 당시엔 잘 쓰지 않던 컬러와 구성이라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놀랍게도 꼭 이 부케를 들고 싶다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해 보내드렸죠. 나중에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신부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 신기하고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❹ 예비 신부에게
글이나 사진만으로 담기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 사람마다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과 상황이 된다면 직접 스튜디오에 방문하셔서 맞춤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말씀해주세요. 그 여정에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오엑스엑스 대표 이유진

SUSTAINABLE

가치 있는 선택, 컨셉 바이 헤넴
@concept_by_henem



❷ 부케 제작 시 집중하는 부분
디자인과 신선도, 품질은 기본이고 특히 부케 손잡이의 그림감을 신경 쓰는 편입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님이 직접 드레스 앞자락과 부케를 한 손으로 잡고 걷는 일이 많다 보니, 부케 손잡이가 너무 두꺼우면 손 근육에 경련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케를 만들 때 손잡이 부분이 한 손에 쏙 들어오는지, 부케를 이리저리 흔들어도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 불안정하거나 손바닥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❶ 콘셉트와 시그니처 스타일
컨셉 바이 헤넴은 제로 웨이스트 웨딩을 지향하는 플라워 숍입니다. 부케 박스나 물포장 주머니를 친환경 소재로 특수 제작해 부케를 포장하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생화보다 재사용이 가능한 고급 조화를 사용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더 합리적인 부케를 디자인해드리고 있어요. 시그니처 부케 스타일로는 뿌리가 살아 있는 식물을 활용해 묶은 부케와 매주 시장에서 가장 예쁜 계절 꽃과 소재를 사용해 내추럴하고 랜덤하게 묶어드리는 ‘헤넴카세’입니다.



❸ 보람을 느낀 사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농장에서 키운 꽃의 뿌리를 살려 부케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비 신부님이 숙근 아네모네 화분을 가져다주시며 조금이라도 좋으니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예쁘게 몇 송이 꽃을 피워 부케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신부님뿐만 아니라 제게도 의미가 남달랐어요. 요즘 부케를 여러 상품으로 재가공해 보관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이 있는 신부님이라면 뿌리를 살린 부케로 더욱 의미 있게 부케를 보존해보는 건 어떨까요?



❹ 예비 신부에게
요즘은 정형화된 스타일보다 자신의 취향이 담긴 부케를 많이 선호하는 신부님들이 많아요. 핀터레스트에서 해외 레퍼런스를 찾아오시거나 부모님 결혼사진을 가져와 그때의 부케를 모티브로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니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지’하는 고민은 접어두시고, 진짜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신부님의 로망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컨셉 바이 헤넴 대표 설해넴

HOW TO CAPTURE THE MOMENT THE WAY WE LOVE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남기는 결혼식의 순간들.
아이폰 스냅의 존재 이유다.



결혼식의 웅장한 순간뿐만 아니라 그날의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담아내는 기록 방식인 '아이폰 스냅'이 인기다. 아이폰 스냅 브랜드를 만나 본식 아이폰 스냅 촬영의 특징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작가를 찾는 방법,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한 전문가의 팁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매주 촬영을 하면서 사랑이란 무형의 단어가 눈에 보이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배우고 있다"는 '도어스냅'과 "작은 아이폰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민감하게 분위기에 반응하며, 그날의 순간을 더 섬세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한다"는 '위아스냅'에게 질문을 던졌다.

Q. 아이폰 스냅, 왜 매력적일까?

DSLR 카메라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벼워 촬영에 대한 부담이 적은 아이폰은 작가가 마치 친구처럼 하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신랑 신부의 꾸미지 않은 진솔한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촬영이 가능해 예상치 못한 웃음이나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낼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신랑 신부와 하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데 최적화된 방식이다.

"내 결혼식의 BTS(Behind The Scene)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진을 결혼의 여운과 감정이 희미해지기 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이폰 스냅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도어스냅(이하 DS)

"예식 당일 촬영한 사진을 바로 SNS에 업로드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아이폰 스냅의 가장 큰 장점이예요. 작가 입장에서는 무거운 장비 없이 한 손에 들어오는 아이폰 하나로 예식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그 안에서 발견하는 따뜻한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에요."
위아스냅(이하 WER)

Q. 나에게 맞는 스냅 업체 및 작가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스냅 작가를 선택할 때는 작가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기존 작업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작가의 시선과 전체적인 톤을 파악하고, 구도 및 인물을 담아내는 방식 등을 살펴본 뒤 내가 원하는 식장 및 분위기와 일치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스냅 촬영은 작가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촬영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하는 콘셉트, 장소,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촬영 당일에도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작가를 만나는 것이 좋다. 작가의 성향과 고객 후기를 통해 소통 능력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업체마다 제공하는 상품 구성이 다르므로 원본 파일 제공 여부, 보정본의 개수, 앨범 제작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산과 필요한 상품 구성을 맞춰 선택하면 된다.

"결혼식은 변수가 많은 행사예요. 같은 홀에서 결혼을 해도 신랑 신부, 하객에 따라 전혀 다른 홀처럼 느껴지기도 할 만큼 말이지. 아무래도 촬영 경험이 많을수록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작가의 경험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작가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렌즈 너머의 인물을 프레임 안에 기록하는 사람은 작가니까요. 브랜드 운영 철학이나 작가의 생각을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는 업체일수록 좋겠죠?" DS

"해당 브랜드의 작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작가들만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팁이에요. 위아스냅의 경우, 인스타그램 각 피드 아래에 어떤 작가가 촬영했는지 해시태그를 달아두었습니다. #위아스냅_대표작가 #위아스냅_솔작가 등 해시태그를 활용해 작가의 스타일도 한 번 파악해보시면 좋아요." WER

Q. 스냅 작가와의 사전 미팅 때 어떤 것들을 질문해야 할까?

작가와의 사전 미팅은 서로의 기대치를 맞추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아이폰의 기종부터 헤어&메이크업 스타일, 예식장, 피로연 등 촬영 범위에 따라 결과물의 양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촬영할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정의 정도나 색감 보정 유무, 결혼식 이후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결과물 전달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당 메뉴에서 특별하게 원하는 장면이나 사진이 있다면 샘플과 함께 촬영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주시면 좋아요. 단상에 올라가서 찍어야 하거나 웨딩로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사진 등 아이폰 스냅 작가가 담기 어려운 사진이 있을 수 있거든요.” DS

“저희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전달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선호하는 얼굴 방향이나 가족 구성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신부님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드레스 스타일이나 스튜디오 등을 여쭙보기도 합니다. 또 예식 당일 특별한 식순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화동 역할을 하는 경우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이 있다면, 사진보다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WER

Q. 아이폰으로 촬영할 때 작가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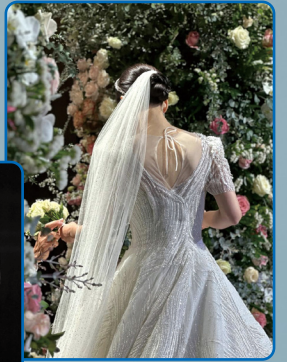
아이폰 스냅 작가는 하객의 시선에서 촬영하는 특성상 메인 사진 작가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소중한 예식을 아름답게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과 배려하며 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폰 스냅은 빠르게 대중화된 예식 문화인 만큼 보다 건강한 웨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본 자체로도 아이폰 특유의 색감과 자연스러움이 나올 수 있게 빛을 조절하는 부분에 신경쓰는 편입니다. 결국 사진은 빛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현장에서는 주도적인 빛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방향이나 위치, 아이폰 기능의 조도들을 조절해 실제 눈으로 보는 현장의 색감이 재현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편이에요.” DS

“결혼식 당일, 예식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다시 담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디테일을 담으려고 해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컷을 촬영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WER

PRO TIPs from Photograp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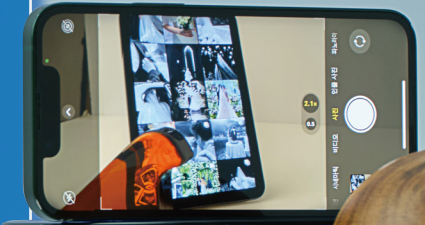
- 여러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한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서칭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향과 일치하는 업체를 발견했다면, 해당 홀이나 비슷한 분위기 홀의 참고할 수 있는 사진을 확인하며, 나의 결혼식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해보는 것도 좋다.
- ‘예정 필터 정보’를 파악해 사진가에게 전달한다.
예비부부의 미적 취향부터 콤플렉스, 좋아하는 사진 구도, 예식의 특별한 순서, 꼭 담아야 하는 순간, 가족의 이야기 등 예비부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애정을 쌓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사전에 이해가 깊을수록 현장에서 바라보는 폭이 넓고 깊어지고, 이는 사진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 아이폰 스냅 촬영 범위를 미리 논의한다.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부터 예식장, 피로연까지 어느 범위까지 촬영을 원하는지 작가와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아이폰 스냅은 DSLR보다 더 가까이에서 다양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에 원하는 촬영 범위를 명확히 전달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 예식 당일에는 작가를 믿고 즐긴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중요한 순간인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축제다. 사진 촬영에 대한 부담감은 작가에게 맡기고, 오롯이 그 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할 것. 행복한 감정은 어떤 연출보다도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낸다.



위아스냅



위아스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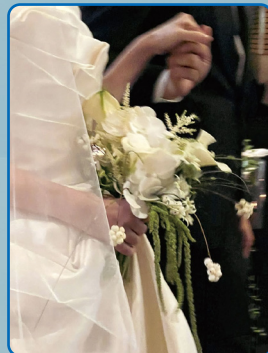
도어스냅



도어스냅



도어스냅



위아스냅

It's All About Little Details

나다운 스타일을 완성하는 웨딩 헤어의 내추럴한 한 곳

최근 웨딩 헤어 트렌드는 획일적인 단정함에서 벗어나 신랑 신부 개개인의 개성과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도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 속에서 '나'에게 맞는 요소를 찾아 적용하고,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나다운'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다. '웨딩의 정석'이라 불리는 로우번이나 포마드 헤어 외에 요즘 신랑 신부가 선호하는 내추럴하고 개성 있는 본식 헤어스타일을 소개한다.

STYLE 1

Braided Hair

머리카락을 땋아 스타일을 완성하는 브레이드 헤어는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수백 가지의 무한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유니크함과 로맨틱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스타일이다. 머리의 반 정도만 땋아 올리고 잔머리를 내주면 화관 없이도 풍성하면서 내추럴한 웨딩 헤어를 연출할 수 있다. 클래식하고 우아한 헤어스타일을 원한다면 머리를 하나로 굽게 땋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 여러 갈래로 머리를 땋아 느슨하게 내려 묶거나 한쪽으로 높게 묶는 포니테일 브레이드로 경쾌한 분위기를 낼 수도 있다. 또 양 갈래로 동그랗게 말아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Point. 땋은 머리 사이에 작은 꽃을 꽂거나 머리띠처럼 화관을 착용하면 자연스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야외 웨딩이나 가든 웨딩에 특히 잘 어울린다. 다양한 헤어핀을 땋은 머리 사이에 꽂아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핀을 여러 개 사용하면 화려한 느낌이, 한두 개만 사용하면 단아한 느낌이 난다. 잎이나 꽃 모양의 섬세한 디자인이 특징인 헤어 바인(Hair Vine)을 땋은 머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감아줘도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

STYLE 2

Low Ponytail

로우 포니테일은 낮게 묶어 연출하는 스타일로, 단아하고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깔끔하게 묶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더하거나 잔머리를 살짝 빼서 연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귀 아래로 느슨하게 묶으면 가늘고 긴 목선과 어깨 라인을 드러내어 여러모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역삼각형 얼굴형의 경우에도 시선을 아래로 분산시켜 얼굴형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클래식한 드레스부터 심플한 드레스까지 폭넓게 어울리며 특히 뒷모습이 포인트인 드레스와 잘 어울린다.

Point. 진주나 플라워 장식의 헤어밴드로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하거나 리본이나 큐빅 장식의 헤어핀으로 포니테일의 묶은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머리 한쪽에 코르사주 장식을 더해 로맨틱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추천한다.

Wedding Hair for Groom

남자에게도 헤어의 한 곳 차이가 크다.

Men's Hair #1

As Perm

이마가 살짝 드러나는 5:5 또는 6:4 가르마를 중심으로 연출하는 애즈 펴름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특징이다. 이마를 반 정도만 드러내어 포마드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더해 이마가 넓거나 헤어라인 정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특히 추천한다. 펴름 시술을 통해 완성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 결혼식 몇 주 전에 C컬이나 S컬을 섞어 모발 전체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풍성하게 살리면 훨씬 더 멋스러운 실루엣이 완성되고, 모발이 가늘거나 볼륨이 없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다.



Men's Hair #2

Two-Block with Parted Perm

투블럭 컷의 깔끔함과 가르마 펴름의 부드러움이 결합된 투블럭 가르마 펴름은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잘라 깔끔한 인상을 주면서 뒷머리와 앞머리의 웨이브로 세련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머리숱이 적은 사람도 풍성한 느낌을 낼 수 있어 볼륨감을 더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가르마의 비율에 따라 이마를 살짝만 드러내거나 시원하게 드러낼 수 있어 이마 노출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도전하기 좋다. 결혼식 몇 주 전 펴름 시술을 하고 컷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 투블럭 가르마 펴름으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자.



STYLE 3

Half-Up

머리 위쪽 절반만 묶고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반묶음 스타일은 얼굴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머리카락 덕분에 부드럽고 청순한 느낌을 준다. 앞머리와 뒷머리의 조화를 유연하게 연출할 수 있어 다양한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둥근 얼굴형이나 각진 얼굴형이라면 옆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 얼굴선을 보완할 수 있다. 잔머리를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디테일로 작용하기에 너무 과하지 않게 애교머리나 잔머리를 살짝 빼줘 헤어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청순함을 더하는 것이 포인트. 채플 웨딩이나 야외 웨딩에 추천한다.

Point. 생화나 조화로 만든 코르사주를 머리 옆이나 묶은 부분에 장식하면 자연스럽게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가느다란 큐빅 헤어밴드나 플라워 헤어밴드를 착용하면 사랑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티아라를 착용하면 우아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높이가 낮은 티아라가 반묶음 머리와 잘 어울린다.



Illustration by Humming Nana



STYLE 4

Short Hair

단발 헤어는 귀엽고 발랄한 매력이 돋보이는 동시에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 많은 예비 신부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일이다. 머리 길이에 따라 다양한 웨이브 스타일, 앞머리 유무, 가르마 방향 등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턱선에 맞춰 웨이브를 넣거나 옆머리 볼륨을 살려 얼굴형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우아한 느낌을 원한다면 굵은 물결 웨이브를,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을 원한다면 잔잔한 C컬을 선택해보자. 깨끗하고 모던한 드레스와 잘 어울리는데 그중에서도 미니 드레스와 단발 헤어가 만나면 사랑스러움이 배가된다.

Point. 단발 헤어는 베일을 고정하기 쉬워 베일을 활용하기 좋은 헤어스타일이다. 짧은 길이의 미니 베일을 착용해 발랄한 느낌을 강조하거나 버드케이지 베일(birdcage veil)로 고전적이면서도 유니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얇고 섬세한 디자인의 큐빅이나 진주 장식 헤어밴드로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헤어밴드는 자연스럽게 볼륨을 줘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다.

Men's Hair #3

Curly Top

곱슬머리 특유의 볼륨과 질감을 강조해 개성을 표현하기 좋은 컬리 톱. 굵고 느슨한 웨이브부터 촘촘한 코일 형태의 곱슬까지, 각자가 가진 컬의 모양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뒷머리의 부드러운 컬 덕분에 전체적으로 친근하고 인위적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고, 각진 얼굴형도 단점을 부드럽게 보완할 수 있다. 곱슬머리를 장점으로 활용해 멋과 개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스타일로, 자신만의 유니크한 매력을 뽐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Men's Hair #4

Long Length

기존의 단정하고 깔끔한 신랑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로맨틱하고 예술적인 느낌을 주는 장발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턱시도의 클래식함과 장발의 자유분방함이 만나면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웨딩 스타일이 완성된다. 특히 평소 장발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본연의 매력을 잃지 않고 결혼식에서도 멋을 낼 수 있다. 여기에 머리 위쪽만 살짝 묶은 반머리나 심플한 디자인의 헤어핀을 활용해 머리를 고정하거나 턱시도와 어울리는 심플한 헤어밴드를 착용해 포인트를 주면 또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My Wedding Memory

지나고 보면 결혼 준비 기간은 반짝이는 찰나의 모음집. 결혼식을
무사히 치른 '선배 부부'들이 결혼 준비의 추억을 꺼냈다.



청첩장 모임을 유쾌하게 만든 '풍선 청첩장'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식사를 함께하는, 일명 '청첩장 모임'은 결혼 준비의 마지막 퀘스트이자 남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정이다. 친구들이 행여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유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첩장과 함께 흰색 풍선도 제작했다. 만나자마자 결혼식 정보가 적힌 이 풍선을 막대에 달아 건넸다. 풍선을 손에 쥐어본 것이 오랜만인 만큼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이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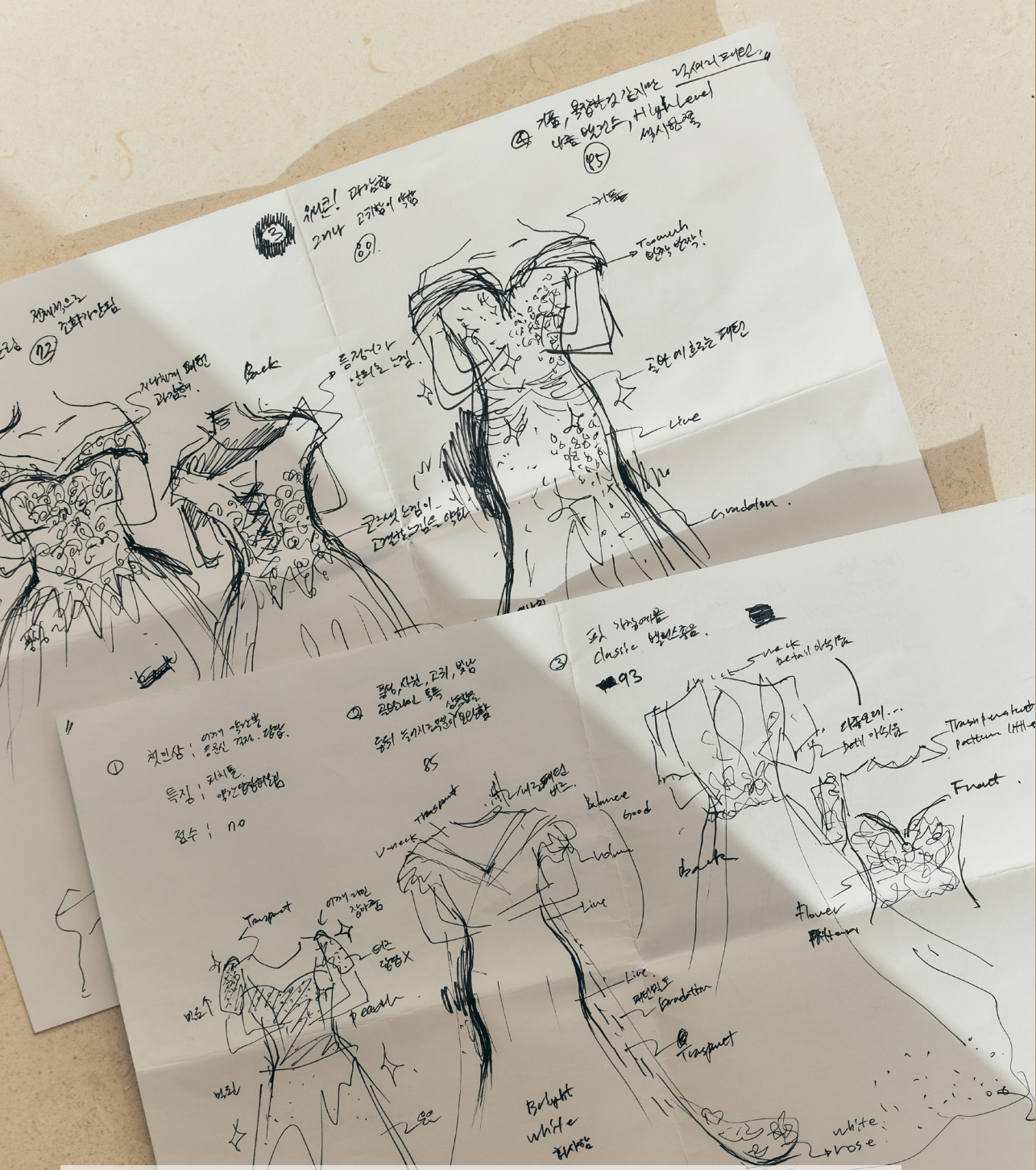
브랜드 디자이너 나하나



찰나의 찰나, 웨딩 스냅 비하인드 컷

우리 부부는 지나치게 화려한 콘셉트보다는 내추럴한 웨딩 사진을 위해 평소 믿음이 가던 사진작가 정멜멜에게 촬영을 부탁했다. 불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이 컷을 찍을 때의 빛, 온도, 소리, 감촉은 지금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다.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면서 큰 의견 차이 없이 일사천리로 끝낸 결혼 준비 기간 덕에 앞으로도 둘이 힘을 합쳐 뭐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편집 디자이너 신건모



남편이 그려준 드레스 투어의 흔적들

얼마 전 이사하면서 발견한 4년 전 결혼 준비의 흔적. 최근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려준 드레스 투어의 스케치를 보고 동심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이걸 어떻게 다 그렸지? 드레스도 꼼꼼히 봐줬네', '그때 나 자신 꽤 괜찮았군'과 같은 추억에도 잠깐 잠겼다. 결혼 준비 과정은 남편과 팀워크를 맞춰볼 수 있었던 기회였고, 지금까지도 그 기운이 이어지는 것 같다. 내가 팀장, 남편은 팀원, 팀미란!

스페이스 디자이너 정미란



직접 디자인한 청첩장을 모아둔 나만의 표구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우리다운' 콘셉트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워낙 문구류를 좋아했고 현재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도 하고 있기에 청첩장은 당연히 내가 만들게 됐다. 우리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내가 상상하고 펼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기회라 아직도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가 크다. 이 청첩장을 아름다운 '모리함' 표구로 만들어 집에 걸어두게 된 이유다.

일러스트레이터 박정화

MUST DO IT TEST BEFORE WEDDING

결혼 준비는 둘만의 팀워크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두 가지 워밍업 테스트를 준비했다.

Test 1

결혼 준비 과정,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결혼 준비는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다.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기에 신랑 신부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잠시 벗어나 가벼운 대화도 필요하다.

‘팀워크 미니 테스트’는 결혼 가치관, 취향, 자산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잠깐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대화 거리가 될 것이다. 서로에게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너무 익숙해 소중함을 잊고 있던 특징은 없는지 돌아보자. 테스트가 끝난 뒤에는, 결혼 생활 속에서 함께 만들고 싶은 추억과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며, 두 사람이 함께 채워갈 미래를 행복하게 상상해보자.

우리의 팀워크 점수는 몇 점?

결혼 가치관
① 내가 꿈꿔온 결혼식과 가까운 유형은? A: 비용을 최소화하고 깔끔하게 준비한 아늑한 결혼식 B: 특별한 하루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화려한 결혼식
② 결혼 생활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서로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 B: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③ 아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A: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 B: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
④ 결혼 후 더 기대되는 것은? A: 언제나 곁에 있다는 안정감 B: 둘이 하나가 되면서 찾아오는 새로운 즐거움
⑤ 결혼 후,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A: 한 가족이 되었으니,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B: 가끔 도움을 주고받는 선에서, 독립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취향
⑥ 내가 꿈꾸는 부부의 취미 생활은? A: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시간을 확보하는 부부 B: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드는 부부
⑦ 곧 있으면 우리의 기념일! 어떻게 보낼까? A: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축하하자. B: 우리 둘이서 서로 축하하자.
⑧ 갑자기 생긴 일주일의 휴가, 우리 뭐할까? A: 일주일 여행 다녀오자. B: 집에서 같이 휴식을 취하자.
⑨ 내가 꿈꾸는 신혼집과 가까운 유형은? A: 계절마다 아이템을 변경하며 화사하게 꾸민 신혼집 B: 깔끔하고, 큰 변화는 잘 하지 않는 신혼집
⑩ 오늘은 나의 생일, 내가 더 기분 좋은 선물은? A: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 B: 나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선물

자산 관리

⑪ 내가 선호하는 돈 관리 방식은?

A: 합쳐서 함께 관리
B: 각자 관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

⑫ 생활비는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까?

A: 큰 금액은 같이 상의하고, 작은 건 알아서 쓰자!
B: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유하자!

⑬ 내가 돈을 버는 이유에 가까운 것은?

A: 맛있는 음식,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 등 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B: 집, 자동차 등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⑭ 우리 돈을 어떻게 모아볼까?

A: 과감한 투자로 모아보자.
B: 안정적인 예금·적금 조금씩 천천히 모아보자.

⑮ 보너스를 받았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

A: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B: 순간의 행복을 즐기는 유형

커뮤니케이션

⑯ 나는 하루 일과를 공유할 때 어떤 스타일인가?

A: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일 위주로 간단하게 공유하는 스타일
B: 세세하게 공유하는 스타일

⑰ 상대방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스타일?

A: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야기하는 스타일
B: 상대방과 바로바로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는 스타일

⑱ 여러 가지 일이 한번에 물려올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 스타일인가?

A: 쉬운 일 먼저 끝내는 유형
B: 어려운 일 먼저 끝내는 유형

⑲ 우리 둘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나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가?

A: 각자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서 진행하자.
B: 같이 힘을 합쳐 진행하자.

⑳ 내가 더 감동받는 애정 표현은?

A: 말로 직접, 자주 "사랑해"라고 표현한다.
B: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뒤에서 챙겨준다.

각자의 답을 기록하고 비교해보자.

No.	예비 신랑	예비 신부	No.	예비 신랑	예비 신부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같은 답을 작성한 문항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16 - 20	백점 만점 환상의 짝꿍!	A+
11 - 15	결혼 준비 순항 중, 이대로만 가볼까요?	A
6 - 10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중!	B+
1 - 5	대화가 필요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볼까요?	B

Test 2

함께 채우는 신혼 생활 버킷리스트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결혼 준비를 할 때 그 시너지는 더욱 강해진다. 서로의 결혼 준비 목표를 확인하고, 신혼 생활이라는 둘만의 즐거움 여정을 위해 미리 버킷리스트를 써보면 어떨까? 참시나마 결혼 준비로 지친 서로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다.

상세한 버킷리스트일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일 채워 나가는 버킷리스트	
○	콘셉트가 있는 집들이 하기
○	커플 잠옷 맞추기
○	커플 신발 선물하기
○	서로 코디해주기
○	함께 악기 배우기
○	함께 운동 배우기
○	신혼집 가구 만들기
○	부부의 전국 맛집 100선 지도 만들기
○	홈 바 만들기
○	홈 시네마 만들기
둘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특별한 일상	
○	커플 번지점프하기
○	10대 명산 등반하기
○	해외에서 캠핑카 여행하기
○	해외 한 달 살이하기
○	음악 페스티벌 가기

함께 작성해보는 우리만의 버킷리스트

[illegible]

기념일마다 해볼 만한 버킷리스트

- 첫 만남 장소 방문하기
- 서로 생일상 차려주기
- 생일 케이크 베이킹하기
- 결혼기념일에 특별한 금액 기부하기
- 결혼 1주년 화보집 촬영하기
- 부부가 함께 이룬 것도!
- 부부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 부부 바디프로필 찍기
- 마라톤 완주하기
- 한번도 안 해본 일 도전하기
-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방문하기

List

WEDDING ESSENTIALS

웨딩 선배들이 한 번쯤은 거쳐간 교과서 같은 웹사이트, 유용한 앱, 필수 정보 모음 리스트를 한데 모았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다 보면 모두가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결혼은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라는 것. 하지만 결혼이 처음인 예비부부에게는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조차 막막하고 정보를 찾는 것부터 많은 에너지가 든다. 설령 정보를 찾는다 하더라도 방대한 양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망설여진다. 그래서 예비부부를 위한 Wedding Essentials 리스트를 준비했다. 예비부부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결혼 준비의 첫 단추를 단단히 끼워줄 든든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1. 결혼 준비 앱과 웹사이트

2. 웨딩 커뮤니티

다이렉트결혼준비	https://cafe.naver.com/directwedding
메이크마이웨딩	https://cafe.naver.com/makemywedding
웨딩킹	https://cafe.naver.com/llchyll
웨딩공부 결혼준비의 모든 것	https://cafe.daum.net/wedgongu
노마드웨딩: 노마드육아, 노마드신혼부부	https://cafe.naver.com/nomadwedding
제이웨딩	https://cafe.naver.com/b00k2012

3. 웨딩 매거진 / SNS 매거진

웨딩북마크		인스타그램 @weddingbook.mark
Wedding 21	https://www.wedding21.co.kr	인스타그램 @wedding21_magazine
Wedding H	https://www.weddingh.co.kr	인스타그램 @weddingh_magazine
BRIDES	https://www.brides.com	
Vogue Weddings	https://www.vogue.com/weddings	인스타그램 @voguweddings
초로미		인스타그램 @chorome_toon

4.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서비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서비스	https://www.price.go.kr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웨딩 지원사업	https://wedding.seoulwomen.or.kr
출산육아 zoomin센터	https://zoomin-center.kr/baby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WEDDING DIARY

아펠리안의 빈틈없는 결혼 준비를 도와줄 웨딩 체크북을 준비했다. 웨딩홀 예약부터 예산 계획, 웨딩드레스와 헤어&메이크업, 스튜디오 선택은 물론 예식 당일 체크리스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웨딩 다이어리와 함께 후회 없는 결혼 준비를 시작해보자.

본식						
구분		예상 금액	실제 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웨딩홀	대관료					
	보증 인원					
	식대(인당)					
	식대(총액)					
	부가서비스					
웨딩 본식	사회자/주례					
	연주/축가					
	플라워 샤워					
	포토월/ 포토부스/ 포토테이블					
	본식 스냅					
	본식 영상					
	아이폰 스냅/현장 라이브					
	본식 부케					
	청첩장					
	본식 기타	웨딩 카				
페백 음식						

예식 준비						
구분		예상 금액	실제 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스튜디오	스튜디오					
	헤어 변형					
	촬영용 부케					
	촬영용 예복					
	기타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 투어					
	기타					
헤어&메이크업	헤어 & 메이크업					
	기타					
웨딩 핏 준비	피부 / 체형 관리					
	스파 / 네일					

MY WEDDING DAY

		예식 준비				
구분		예상 금액	실제 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예물	웨딩 밴드					
	추가					
예복	신랑 턱시도					
	신랑 액세서리					
	신랑 구두					
혼주 셋업	혼주 헤어 & 메이크업					
	혼주 한복					
	혼주 정장					
신혼여행	항공권					
	숙박비					
	기타 경비					
답례품	상견례 선물					
	청첩장 모임					
	답례품					

WEDDING DRESS

드레스 슷:



드레스 슷:



Comment

Comment

드레스 슷:



드레스 슷:



Comment

Comment

Apellian

UMOMENT

CEO & Publisher

김수연 Kim Soo Youn

ADMINISTRATION

Director

이민현 Lee Min Hyun

MARKETING TEAM

한유정 Han Yoo Jung

권소양 Kwon So Yang

임소정 Lim So Jeong

이지수 Lee Ji Su

이민정 Lee Min Jeong

조명현 Cho Myung Hyun

EDITORIAL

리프레시먼트 워크스

refreshment works

PHOTOGRAPH

이욱영 Lee Wook Yeong

이현석 Lee Hyun Seok

발행처 (주)유모먼트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16, 3~5층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SINCE 2018

2025년 11월 · Apellian 6호

더채플엠텍당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논현동) | 02-421-1121

더채플엠텍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9(역삼동) | 02-562-1121

더채플엠텍대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8(대치동) | 02-554-1121

아펠가모 잠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 02-2144-0230

아펠가모 반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반포 효성빌딩 LL층(지하2층) | 02-3431-0230

아펠가모 광화문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중학동), 더케이타워 A동 LL층(지하2층) | 02-730-0230

아펠가모 선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 4층 | 02-2183-0230

아펠가모 공덕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92(도화동), 효성해링턴스퀘어 B동 6~7층 | 02-2197-0230

루벨 강동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 35~36층 | 02-6956-0230

Apellian